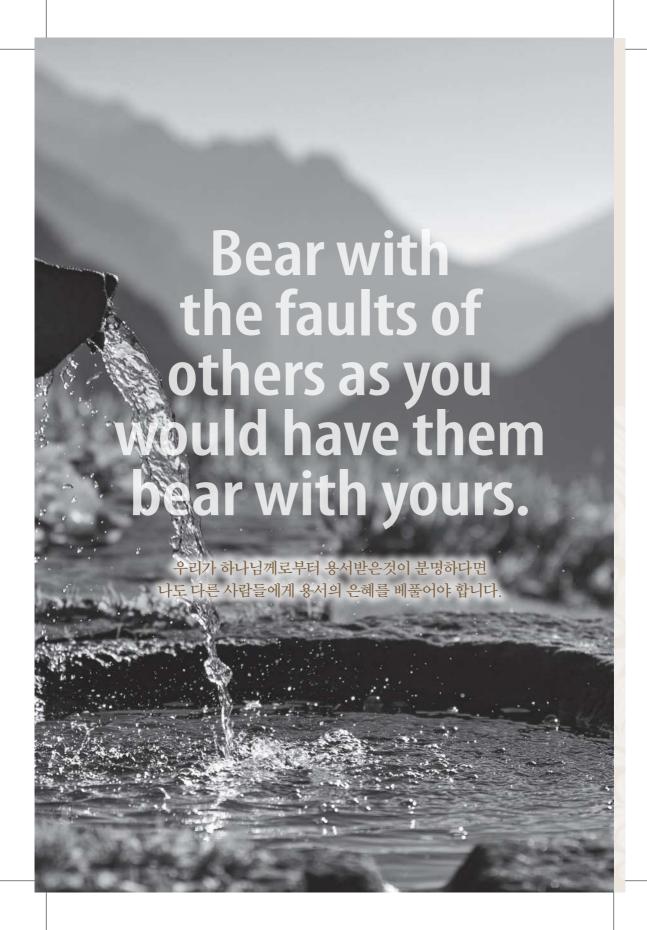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Dear Lord 주님,

From May 2022, 5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화요일·Tue 11 2022 JANUARY

##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아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항'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 ●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무사·차세기 9:20-27

3 통독·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sup>1</sup>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sup>22</sup>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카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sup>23</sup>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sup>24</sup>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 악고

<sup>25</sup>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sup>26</sup>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sup>27</sup>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영더라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Reading Insight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horther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Moditation Genesis 9:20-27

Reading Han • Genesis 9

 $^{\rm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yard.

- 21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 <sup>22</sup>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sup>24</sup>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 $^{\rm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27}$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Engu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와 이에 함

께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3-4절) What was the food given by

What was the food given by God and the accompanying warning? (9:3-4)

경고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 해보십시오. (5-6절)

Please meditate deeply on the meanings contained in the warning. (9:5-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3)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②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61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처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ayer for Outdook & Pastors 영커리자한인연합리교회, 금완째AK/ 기쁨의 교회, 중춘색AL) 한안송회, 한인교회, 공동화를 위한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확'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충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응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만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응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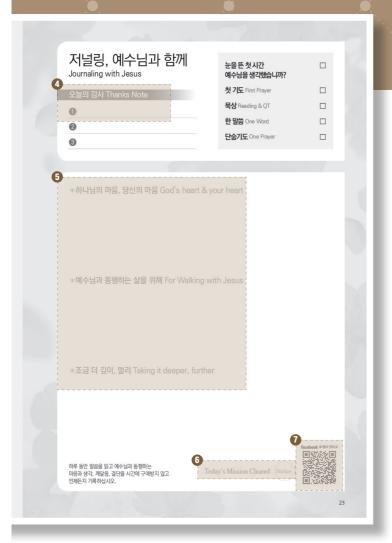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22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문제없다

##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찬송,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4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언제가좋을까요?**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 2022 May

# 05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	ONDAY	TU	IESDAY
1	2	시편 Psalm 1-2편 🏻	3	시편 Psalm 3-5편 □
8	9	시편 Psalm 17-18편 🗆	10	시편 Psalm 19-21편 □
15	16	시편 Psalm 34-35편 $\square$	17	시편 Psalm 36-37편 $\square$
22	23	시편 Psalm 49-50편 $\square$	24	시편 Psalm 51-53편 $\square$
29	30	시편 Psalm 68-69편 $\square$	31	시편 Psalm 70-72편 $\square$

WEI	DNESDAY	THU	JRSDAY	FRIDAY	SATURDAY
4	시편 Psalm 6-7편 🏻	5	시편 Psalm 8-9편 □	6 시편 Psalm 10-12편 □	<b>7</b> 시편 Psalm 13-16편 □
11	시편 Psalm 22-24편 🗆	12	시편 Psalm 25-27편 □	시편 Psalm 28-30편 □	14 N편 Psalm 31-33편□
18	시편 Psalm 38-39편 $\square$	19	시편 Psalm 40-41편 □	<b>20</b> 시편 Psalm 42-44편 □	<b>21</b> 시편 Psalm 45-48편 □
25	시편 Psalm 54-56편 $\square$	26	시편 Psalm 57-60편 🗆	<b>27</b> 시편 Psalm 61-64편 □	<b>28</b> 시편 Psalm 65-67편 □
				1 2	0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 Why \_왜 읽어야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 분 안에 있는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어떤보배인가

작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 Chapter 1 겸손: 피조물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absolute need)를 숙찰해 본다면 우리는 기쁘게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중요성과 본질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않았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무가치함(the sense of entire nothingness)을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이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깨달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삶을 살고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자할때 비로소 겸손이란 우리의 진정한 위치 즉 우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결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주요한 표시(chief mark)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세상에는 겸손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 겸손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러한 겸손의 진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잊혀진 듯합니다. 비록 죄가 겸손의 강한 동기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겸손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을 겸손하게 만든 이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며 축복받는 비결이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죄보다 더 강한 겸손의 동기입니다.

13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특징인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제자들의 구별된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과 기도 그리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게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그리고 자주 가르 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 렸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묵상을 시작할 때 있어서 교 만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음흉한 것이며 이보다 더 위험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결심을 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겸손이 부족하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 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사랑함과 존경심으로 가득 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갑시 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깨닫고 이 교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 함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 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14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시편

## 시편(Psalms)이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가?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찬양들의 책'이란 뜻을 가진 '세페르 테힐림'입니다. '테힐림'(Tehillim-찬양들)은 하랄(halal)에서 나왔고, 할렐루야(hallelujah-여호와를 찬양하라)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성경의 'Psalms'와 개역성경의 '시편'(詩篇)은 헬라어 70인 역 제목 '살모이'의 번역으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 시편은 언제, 누가 기록했는가?

유대 랍비들의 책, 탈무드는 '다윗과 10명의 장로들이 함께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모세에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그중 50여 편은 저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100여 편은 최소한 7명의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오랜 세월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매 시편마다 각기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다수의 시는 거의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광야 유랑 생활 중 모세가 부른 시편 90편이나, 남유다 왕국 멸망 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익명의 시인이 부른 시편 137편등 몇몇 시편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특히 150편 중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되기에 시편의 편집을 다윗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자의 이름이 없는 시편 중에는 신약에서 다윗의 기도시(2, 95-96, 105편 등)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다윗(73편), 아삽 (12편), 고라 자손(10편), 솔로몬(2편), 모세(1편), 헤만(1편), 에단(1편) 등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시들은 여러 시대를 거쳐 예배용 혹은 순례용 등으로 사용되면 서묶여한 권의 시집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다수 시편은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불려졌지만 출애굽 후 광야에서 기록된 모세의 시편(90편)이나 바벨론 포로 시기 익명의 시인이 부른 시편(137편) 등은 이방 땅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 시편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되는데, 제1권은 1-41편, 제2권은 42-72편, 제3권은 73-89편, 제4권은 90-106편, 제5권은 107-150편입니다. 이 구분은 고대 성경 주석 미드라쉬-Midrash에서 전통 유대 랍비들이 모세 5경을 따라 구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의 제1권은 다윗 사후 솔로몬에 의해, 제2권은 고라 자손에 의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 제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정리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자별로 제1다윗 시집, 제2다윗 시집, 고라시집, 아삽시집, 순례자를 위한 시집, 할렐루야 시집 등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 제1다윗시집(3-41편)가장오래되고그내용이나서정성에 있어탁월.
- 제2다윗시집(51-72편)에속하는다윗의시편.
- 고라시집은고라가지은 42-49, 84-85, 87-88편등 11편.
- 아삽시집은 아삽의 시를 수집한 것인데, 50, 73-83편 모두 12편.
- 순례자를 위한 시집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가 붙어 있고, 시편 120-134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 갈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 성전 예배 때에 불려졌던 시편.

• 할렐루야 시집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등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도 록 구성된시로, 시편 103, 107, 111-118, 135-136, 146-150편.

##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의 중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 문명을 모두 쌓아도 시편 한 권만 못하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시편을 주제별로 나누어 본다면 '고난과 역경 중에 드리는 기도,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질서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 /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죄에 대한 회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지만 시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경배를 위해 드려진 기도,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주의 창조자, 유일무이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도이며 그분과 나누는 아주 솔직한 대화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이 아름답고, 섬세하며, 처절하고, 웅장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특히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기도와 찬양입니다.

## 시편 1~72편 이야기

시편 1, 2권의 72편 중에는 "다윗의" 시(히, ledawid- 레다비드)라는 제목이 붙은 55편이 실려있습니다. 전체 73편의 다윗의 시는 제1권에 37편, 제2권에 18편, 제3권에 1편, 제4권에 2편, 제5권에 15편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제목이 붙은 시 모두가 다윗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빌어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윗이 모아 편집한 선집에 속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의 이름이 저자로 등장하지 않는 시편 가운데에도 다윗의 저작을 추정할 수 있는 찬송시(예, 121편)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과 친숙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빼어난 지식으로 구세 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기도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역경과 슬픔, 시련 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게 되었고, 겉모양으로 그는 왕으로서 찬란한 인생을 누렸으며, 자신의 보좌 위에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왕이었지만 이새의 아들, 한 목자로써 항상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갈급함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또한 그의 감미롭고, 비애적인 노래들은 다윗의 개성과 그 예술적 탁월함을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다윗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찬양과음악은 놀라운 발전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본을 보여주고, 그 나라 백성들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아직 성전이 없던 시절, 다윗과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옮기고,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룩한 제사를 위한 여러 사역을 풍성하게 이끌었습니다.

시편 1, 2권이 정리된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던 에스라-느헤미야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잃고 성전과 예배의 중요 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서기관들은 참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배를 위해 시편을 정리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 참고도서

구약개론 (월터 브루그만 / 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개론 (구덕관 / 대한기독교서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애빙돈) 해설 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일과 놀이)

# MAY 0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묵상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이강목사님아침묵상 가득한연합감리교회, NJ

"Socially distant but Spiritually connected!" "그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1:15

40년 전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참 꿈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해외여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라 한국을 떠나 미국 땅을 밟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생각만큼 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학교도 쉽지 않았고 직장도, 사업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꿈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거나 되고 싶은 것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되고 싶은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모호했습니다. 또 그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원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거나 무엇이 되라고 직접 말씀하시거나 깨닫게 하신 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오 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품게 해 주신 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것같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그 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나 단지 우리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에도 얼마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다 너무 "세상적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씀의 발견은 깨달음을 낳고, 생각을 불러옵니다. 그 생각은 더 깊은 깨달음을 낳고, 깨달음은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꿈의 대화"로 안내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옵니다. Road less travelled(우리가 가지 않은 길)의 저자 스콧 팩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생각의 게으름"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깊은 생각도 성찰도 없이 휩쓸린 것이 원죄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기능을 주시고 잘 활용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라고 하십니다. "생각의 훈련"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의 훈련"을 하는 것에 엄청난 축복과 파워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요셉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코람 데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결국을 보게 된다는 지혜입니다.

묵상은 생각의 훈련입니다. 꿈의 대화입니다. 오주여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룁니다 주의 기쁘신 뜻을 구합니다. 깨달음으로 더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소서 꿈의 대화로 인도하소서,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 <sup>вден</sup> моп

2022 May

# 두 개의 길

The Two Way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 ♬ 새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 <sub>묵상</sub>•시편 1편

통독·시편 1-2편

- 1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4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 도다
-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 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presents us with two different ways of life; one leading to blessing and the other to perishing.

[7] (Hymn 413)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 Meditation • Psalm 1

Reading Plan · Psalm 1-2

- 1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 <sup>2</sup>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 <sup>3</sup>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In all that he does, he prospers.
- 4 The wicked are not so, but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drives away.
- 5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 6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2절) What makes one happy? (1:2)

악인이 겨같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Why does the wicked become like chaff? (1:3-4)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콜럼비이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SC)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진정한 축복 True Blessings

저는 이스라엘에서 발굴을 하는 성서 고고학자입니다. 발굴 기간 동안 우리 팀이 키부츠에 머물 때 현지인들이 종종 "무언가를 찾았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는 금으로 만든 물건과 같은 귀중한 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고고학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중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과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더 높은 직분이나 지위를 통해 얻는 세상의 물질적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따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3절) 시편 기자는 참된 복은 생명의 근원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시들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 가까이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I'm a biblical archaeologist digging in Israel. During the excavation seasons, when our team stayed in a kibbutz, oftentimes the locals asked us, "Did you find something?" Here, "something" means some valuable artifacts, like an object made of gold. But for Christian archaeologists, one of the true values comes from the fact that they come close to the time of Jesus and the ancient Israelites. This is a true blessing.

When we think about blessing, we automatically think about worldly material blessings by having a higher office or status in the world. However, according to Psalm 1, this is not the case. Just like the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1:3), the psalmist insists that the true blessing is to live with the source of our life. That is, we can get the true blessings when we abide in God.

If we abide in God, we'll not only lack nothing but also automatically bear fruits in Him. So, this psalm asks us to examine our heart and life whether we're yielding fruit or whether we're withering. In doing so, we can know whether we're abiding in God or at least going on the way that leads us to come closer to God, or the way to perishing. Which way are you taking right now?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22 May

# 하나님에 대한 신뢰

Trust in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 ♬ 새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sub>묵상</sub>•시편 3편

통독·시편 3-5편

-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자가 많으니이다
-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 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셀라)
-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셀라)
- 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 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 으셨나이다
-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presents us with an idea that deliverance belongs to God.

7 (Hymn 406) I Have Found Sweet Rest

Meditation • Psalm 3

Reading Plan · Psalm 3-5

- <sup>1</sup> O LORD, how many are my foes! Many are rising against me;
- <sup>2</sup> many are saying of my soul, there is no salvation for him in God. Selah
- <sup>3</sup> But you, O LORD, are a shield about me, my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 4 I cried alou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his holy hill. Selah
- <sup>5</sup> I lay down and slept; I woke again, for the LORD sustained me
- 6 I will not be afraid of many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set themselves against me all around.
- <sup>7</sup> Arise, O LORD! Save me, O my God! For you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cheek; you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 8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Sela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낀 적 이 있습니까? (1절)

Have you ever felt that you were surrounded by your enemies? (3:1)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 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 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7절)

Have you ever cried to God, "Arise, O LORD! Save me, O my God!"? (3:7)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우리가 싸우는 방법 How We Fight Our Battles

2014년 여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야간 공습 사이렌 소리가 네다섯 번 연속으로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에서 대피하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쟁 중, 특히 안식일에 신속하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자 저는 비행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 았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했던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바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부족의 반영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라고 말했습니다. 역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우리는 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조용히 요동치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서 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압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시 23:5). 그래서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It was the summer of 2014 when a war broke out between Israel and Gaza. After the night I heard the air raid sirens four or five consecutive times, I was ordered to evacuate from Israel. Arranging immediate evacuation during the war and particularly on the Sabbath seemed impossible. But at the end of the next day, I was able to sit in the airplane. When I looked back at myself, I saw that I was very anxious because I didn't have trust in God.

In our life on earth, anxiety comes when we think that we are surrounded by our enemies. Our hectic life is a reflection of our lack of trust in God. As a psalmist said,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Ps 46:10). It is in a reversed order but when we put our trust in God (knowing who our God is), then, we can be still in this hectic and confused world.

There is a song with lines that go like this: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This is the confession that the psalmist extrapolates in this psalm. Though he is experiencing a hard time because of his enemies, he knows that he is not surrounded by his enemies but by God. The psalmist has faith in God. He believes that his God is the one who prepares a table in the presence of his enemies (Ps 23:5). So, the song continues to go on,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s." When trouble comes, this should be our confession as well.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r 🗆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fag·Wed 04

2022 May

#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Prayer for Help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6편은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 ♬ 새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묵상・시편 6편

통독·시편 6-7편

- 1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 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 2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 3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 4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워하소서
- 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 6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 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 7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 8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들으셨도다
-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 도를 받으시리로다
-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떪이여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 Reading Insight

Psalm 6 is a prayer asking God for healing not only for his body but also for his soul.

[7] (Hymn 314) More Love to Thee, O Christ,

## Meditation • Psalm 6

Reading Plan · Psalm 6-7

- <sup>1</sup>O LORD, rebuke me not in your anger, n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 <sup>2</sup> Be gracious to me, O LORD, for I am languishing; heal me, O LORD, for my bones are troubled.
- <sup>3</sup> My soul also is greatly troubled. But you, O LORD--how long?
- 4 Turn, O LORD, deliver my life; save me for the sake of your steadfast love.
- **5** For in death there is no remembrance of you; in Sheol who will give you praise?
- 6 I am weary with my moaning; every night I flood my bed with tears; I drench my couch with my weeping.
- <sup>7</sup> My eye wastes away because of grief; it grows weak because of all my foes.
- 8 Depart from me, all you workers of evil, for the LORD has heard the sound of my weeping.
- 9 The LORD has heard my plea; the LORD accepts my prayer.
- 10 All my enemies shall be ashamed and greatly troubled; they shall turn back and be put to shame in a momen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렇다면 왜 병에서 회복하고 싶었습 니까? (5절)

Have you prayed for healing? Then why did you want to recover from the illness? (6:5)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 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 습니까? (9절)

When you pray to God, do you have conviction that God hears your prayer? (6:9)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몸 Our Bodies Glorifying God

한국에서 예비역 훈련을 처음 갔을 때 한 사람이 남들과 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체격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복과 베레모도 입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보병이었는데 그는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동안 들판에서 뛰고, 기어 다니고, 총을 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나중에 제복에 흙이 묻는 것이 싫어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 몸을 단련하고, 달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근육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몸을 통해 우리는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 역시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플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건 강한 육체를 갖는 것은 또한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갖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When I first went to the reserve duty training in Korea, one guy caught the others' eyes because he was different. He was not only well-built, but he also wore a different uniform and a beret. He was a part of special forces while most of them were normal foot soldiers. But it was more surprising to see that during the training, like running in the field, crawling, or shooting, he didn't want to do anything. I heard he didn't want dirt to get on his uniform!

Nowadays, it has become a trend that we exercise our body, running and lifting in order to achieve one's ideal body shape. But with those great muscles and abs, if we don't get to use them, they are useless. Of course, through an ideally healthy body we can have a healthy life without illnesses and sickness. But if that is all, we may say that that is also in vain.

We should strive to have a healthy body, mind, and soul. So, when we are sick, we should pray to God for healing like the psalmist. It is important to have a healthy body which also helps us to have a healthy mind and soul. But more important than having a sound body, mind, and soul is the purpose of having them. We should ask ourselves if we are using our healthy body, mind, and soul to praise God. As the psalmist says, there is a time when we can'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48일·Thu 05**

2022 May

#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

Divine Majesty and Human Dignity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 양합니다.

### ♬ 새21장 다 찬양하여라

## 묵상・시편 8편

통독·시편 8-9편

-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 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2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 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3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 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4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 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 을 씌우셨나이다
- 6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7곡모든소와양과들짐승이며
-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이다
-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 다운지요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acknowledges and praises God's majestic sovereignty, which gives human dignity.

7 (Hymn 21) Praise to the Lord, the Almighty

Meditation • Psalm 8

Reading Plan · Psalm 8-9

- <sup>1</sup>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You have set your glory above the heavens.
- <sup>2</sup> Out of the mouth of babies and infants, you have established strength because of your foes, to still the enemy and the avenger.
- <sup>3</sup> When I look at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4 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 and the son of man that you care for him?
- <sup>5</sup> Yet you have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heavenly beings and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 6 You have given him dominion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hav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 <sup>7</sup> all sheep and oxen, and also the beasts of the field,
- 8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the fish of the sea, whatever passes along the paths of the seas.
- 9 O LORD, our Lord, how majestic is your name in all the ear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3절) How does the psalmist praise God? (8:2-3)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물과 어떻게 관련짓습니까? (4-8절)

How does the psalmist relate himself to God's creation? (8:4–8)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ver for Churches & Pastors

러벅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유양진(TX)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여권

Passport for the Children of God

여권의 힘! 이것은 여권으로 무비자 또는 입국 후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이슬람 국가의 지하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여권과 싱가포르 여권을 소지한 학생들은 공항에 도착하여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출국 전 미리 비자를 신청해야했습니다.

높은 순위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와 한국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권 순위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여권 보다 더 높고 힘이 있는 여권을 주는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의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신성한 존엄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렇다면어떤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여권! 이 여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Passport power! It means how many countries one can enter visa-free or visa-on-arrival with his/her passport. Befor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I went to visit an underground church in a Muslim country with my college students. Those who had Korean and Singaporean passports received the visa upon their arrival at the airport. But those who had a U.S. passport had to apply for the visa ahead of time.

Those who have a high-ranking passport are very proud of their countries. Accordingly, my Singaporean and other Korean students were very proud to be the citizens of Singapore and Korea. This passport ranking, however, fluctuates depending on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But at the same time, it shows us inequality.

We know that there is a citizenship that unseats those high-ranking passports in the world. That is the sonship, which anyone can claim to have by acknowledging and confessing God's sovereignty over all his creation. God is all powerful and majestic. Therefore, whoever claims to be His sons and daughters are also endowed with this divine dignity. So, which passport is the best to hold? The passport of the children of God! Do you have this passpor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3821·Fri

2022 May

#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Confidence and Trust in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임박한 위험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전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 ♬ 새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sub>묵상</sub>·시편 11편

통독·시편 10-12편

- 1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 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 2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 3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 4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 5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 6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 7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 Reading Insight

In the midst of imminent danger, the psalmist confesses that God is his refuge where he can find safety and peace.

(Hymn 407) Dying with Jesus

# Meditation • Psalm 11

Reading Plan · Psalm 10-12

- <sup>1</sup> In the LORD I take refuge. How then can you say to me: "Flee like a bird to your mountain.
- <sup>2</sup> For look, the wicked bend their bows; they set their arrows against the strings to shoot from the shadows at the upright in heart.
- 3 When the foundations are being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 4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 is on his heavenly throne. He observes everyone on earth; his eyes examine them.
- <sup>5</sup> The LORD examines the righteous, but the wicked, those who love violence, he hates with a passion.
- **6** On the wicked he will rain fiery coals and burning sulfur; a scorching wind will be their lot.
- 7 For the LORD is righteous, he loves justice; the upright will see his fac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당신은 하나님께 피한 적이 있습니까? (1절) Have you ever taken refuge in God? (11:1)

하나님께서 의인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What would be a reason for God to test the righteous? (11: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성루가연합감리교회, 소정일(TX)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우리의 피난처인 여호와 The LORD is Our Refuge

2014년 7월 어느 날, 앞서 말했듯이 가자에서 4~5발의 로켓이 날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머물렀던 키부츠의 보안 책임자가 공습 사이렌이 울렸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대피소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가장 먼 사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듣고 로켓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15~20초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낡고 녹슨 대피소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방 옆에 있던 이웃이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보호소로 달려간다면 나도 따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제 이웃은 시간 내에 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게 뛰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달릴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달려갈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때에 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Sometime in July back in 2014, as I said before, I had four or five incoming rockets from Gaza. A couple of days earlier, the head of security at the kibbutz where we were staying, instructed us on what to do when we heard an air raid siren. We should run to a nearby shelter. A good thing was that since we were in the outer range, we had 15–20 seconds before rockets hit us after we heard sirens. But somehow, I didn't know where the closest one was for me.

Many people laughed seeing the old and rusty shelters. But that night was different. Everybody got scared. And at one point, I heard a guy next to my room go outside. If he runs to the shelter, I want to follow him. My old neighbor, however, told me that he is too old to make it to the shelter in time. In the imminent danger, we not only have to know where to run although it doesn't look good to our eyes, but we also need to be able to run. I believe it is true to our Christian life as well.

In our life, whether it is physical or spiritual, if we have reasons to take refuge in God, we have to know where we can find Him. But first thing first. We have to believe in God and trust that God will protect us. In the world, people may laugh at us for having God as our shelter. But when the time comes, for those who trust God, they can run and take refuge in God. Those who don't have trust in God not only don't know where to escape but also can't race on that 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R일·Sat

2022 May

#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

Entering God's Sanctuary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 새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sub>묵상</sub>·시편 15편

통독·시편 13-16편

-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 4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 도 변하지 아니하며
- 5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says that those who are holy may go and abide in God.

7 (Hymn 425) Have Thine own way, Lord

Meditation • Psalm 15

Reading Plan · Psalm 13-16

- <sup>1</sup>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 <sup>2</sup>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 <sup>3</sup> whose tongue utters no slander, who does no wrong to a neighbor, and casts no slur on others;
- 4 who despises a vile person but honors those who fear the LORD; who keeps an oath even when it hurts, and does not change their mind;
- <sup>5</sup> who lends money to the poor without interest; who does not accept a bribe against the innocent. Whoever does these things will never be shake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1절) Where does God live? (15:1)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5절) What promise is given to those who make themselves abide in God? (15: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

성베드로연합감리교회 한어부, 김데이빗(TX) 세상의 빛 연합감리교회, 김형남(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Who May Abide in God's Tent?

어느 여름, 우리가 땅을 파다 대학생 발굴 자원봉사자가 우연히 그의 뒤에서 도기 조각을 주워 유물을 모으는 버킷에 넣었습니다. 그 버킷은 앞에 있는 그가 작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굴한 유물을 모으는 것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도자기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버킷 라벨에 "오염"이라는 특별한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보물 찾기가 아닌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고고학적 발굴에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굴된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연구는 수집된 유물의 무결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체 유물의 무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오염된 버킷에 있는 유물은 그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산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2~5절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무결성, 고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온전함을 훼손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One summer, when we were digging, a college dig volunteer accidently picked a pottery sherd from behind him and put it in a bucket, which was designated for the area where he was working on, which was in front of him. It was just a small pottery sherd. But we had to mak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of the bucket—"contamination."

In doing archaeological excavation, meaning scientific studies not treasure hunting, recording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study excavated artifacts, we have to know where they come from. The whole study is based on the integrity of the collected artifacts. Putting an artifact in a bucket other than the one that it is supposed to be in compromises the integrity of the whole batch. It can't be trusted and therefore it can't be included in our study. The same goes to our faith seeking.

The psalmist says that holy God is dwelling on His holy hill. So, in order to come and abide in God, we must be holy. The psalmist lists how we can be holy in vv. 2–5. They are the ways in which we can keep our integrity as God's holy people. And those who keep them can abide in God. But those who do not keep them, they compromise their integrity and therefore can't go and abide in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MAY 08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어머니 날

한진호목사 은혜연합감리교회, CA

오늘은 어머니날이며,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어머니날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유래가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17세기 이후 사순절 기간 중에 네 번째 주일(부활주일 3주 전)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아일랜드와 영국 교회의 풍습을 '어버이날'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좀 더 타당한 유래는 두 번째입니다.

곧 미국에서 전래된 유래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종결 직후인 1870년 여성 참정권운동가 쥴리아 워드 하우는 남편과 아이들을 전장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어머니의 날 선언 (Mother's Day Procla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남북 전쟁 중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앤 자비스에 의해서 제창된 '어머니의 봉사일(Mother's Work Days)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이날은 적군,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들의 위생을 돌보기 위해 지역 여성이 동원되어 활동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우의 '어머니날'은 널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07년 5월 12일, 앤 자비스 사후 2년이 지났을 때 그의 딸 안나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교회에서 기념식을 갖고 흰 카네이션을 헌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나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때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듬해 1908년 5월 10일 같은 교회에 470명의 학생과 어머니들이 모여 최초의 어머니의 날을 축하하였습

니다. 이때 안나는 참가자 전원에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흰색카네이션을 전달했기 때문에 흰색카네이션이 어머니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안나의 어머니날에 대한 홍보와 활동으로 미국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해마다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지내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개칭하여 지금까지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유래된 이 어머니날은 교회의 문화에서 창출된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과 은혜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머니들께서는 자신의 몸과마음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70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께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도 그 연세에도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만큼 구구 절절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보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시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 <sup>ваед</sup>·моп

2022 May

#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God Will Surely Help U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서 우리를 위해 보복하실 것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 새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 묵상·**시편** 18:46─50

통독·시편 17-18편

- 46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 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 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 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 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 50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says that if we trust that God is our salvation, we should also trust that God will take vengeance for us.

7 (Hymn 386) In the Rifted Rock I'm Resting

Meditation • Psalm 18:46-50

Reading Plan · Psalm 17–18

- **46** The LORD lives! Praise be to my Rock! Exalted be God my Savior!
- 47 He is the God who avenges me, who subdues nations under me,
- **48** who saves me from my enemies. You exalted me above my foes; from a violent man you rescued me.
- **49** Therefore I will praise you, LORD, among the nations; I will sing the praises of your name.
- 50 He gives his king great victories; he shows unfailing love to his anointed, to David and to his descendants forever.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누가 우리의 원한을 값습니까? (47절) Who gives us vengeance? (18:47)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50절)

To Whom does God promise to show his steadfast love? (18:50)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우리의 복수는 하나님의 것 God Will Take Our Vengeance

제가 공부할 때 어느 수업에 다른 학생이 제 논문을 나쁘게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학기에 그 학생과 다시 같은 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평가해야 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의 논문을 평가한다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누군가를 쫓는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일을 바로잡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 자명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나온 것으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복수하실 것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며 구원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복수하실 것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복수를 합니까?

One semester when I was studying, one classmate reviewed my paper badly. I had a grudge on him. But in the next semester, he and I were sitting in the same class again. And once again, we had to write a research paper and we had to review the others' work. "Should I volunteer to review his paper?" I thought. But I hesitated. At that moment, our professor told us, "If you're going after someone, this is the chance." So, I raised my hand with a big smile.

In the world, we may say "vengeance is mine" because if not, no one would help me and make things right. So, in modern society, "vengeance is mine" has become an axiom. This phrase, "Vengeance is mine," is from Deuteronomy 32:35 and it was quoted by Paul in Romans 12:19. But the importance should be given to the fact that vengeance belongs to God, not to us.

How can we know that God would take vengeance for us? So, the psalmist shows his trust in God that God is his rock and his salvation. Trust matters. Because the psalmist believes that God is his salvation, he can also trust that God will take vengeance for him. Do we have such trust? Or do we take our vengeances by ourselve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П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화요일·Tue 10 2022 May

#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

Seeking God's Help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한다고 주 장합니다.

# ♬ 새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 묵상・시편 20편

통독·시편 19-21편

- 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 2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 3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셀라)
- 4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워하노라
- 5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 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 6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 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 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 8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 도다
- 9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maintains that people of God should take pride in the name of the LORD.

√7 (Hymn 352) Stand Up for Jesus

Meditation • Psalm 20

Reading Plan · Psalm 19-21

- <sup>1</sup> May the LORD answer you when you are in distress; may the name of the God of Jacob protect you.
- <sup>2</sup> May he send you help from the sanctuary and grant you support from Zion.
- <sup>3</sup> May he remember all your sacrifices and accept your burnt offerings.
- 4 May he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and make all your plans succeed.
- <sup>5</sup> May we shout for joy over your victory and lift up our banners in the name of our God. May the LORD grant all your requests.
- 6 Now this I know: The LORD gives victory to his anointed. He answers him from his heavenly sanctuary with the victorious power of his right hand.
- **7** Some trust in chariots and some in horses, but we trust in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 8 They are brought to their knees and fall, but we rise up and stand firm.
- **9**LORD, give victory to the king! Answer us when we call!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도움을 보내시고 지원하실 것입니까? (2절) From where would God send help and provide support? (20:2)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러워해야 합 니까? (7절)

What should we be proud of? (20:7)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우리의 진정한 자랑, 하나님 God Is Our True Pride

2014년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떠났던 금요일, 저는 처음에 대피 준비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특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이 아니라 구조, 대피, 송환에 특화된 보험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동료들이 혼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보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특별한 보험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저를 제가 있는 지역을 잘 아는 다른 사무실로 옮겨 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소위 말하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위해 특별 대피 팀을 파견하고 특별 공수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심한 영국 억양으로 "그곳은 위험하니 거기서 얼른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보험이 쓸모가 없고, 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보험에 의존하고 그 것을 신뢰합니다. 물론 건강 보험, 자동차 보험, 임대 보험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가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7절) 자랑스러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On the Friday when I left Israel in the middle of excavation due to the Gaza War in 2014, I didn't worry too much about arranging my evacuation in the first place. I had special insurance for this kind of an incident! It was not the usual travel insurance, but one that was specialized for rescuing, evacuation, and repatriation. While many other colleagues couldn't do anything in the middle of havoc, I managed to be calm. I told them I had insurance. I took pride in my special insurance.

So, I tried to use it to show them what kind of service I could get. I made a call through Skype to an office in Philadelphia. But when they learned where I was, they transferred me to some other office who knew about my area. After a long wait and transferring, I finally got to talk to a so-called specialist. I expected that he would dispatch a special evacuation team to me and give me a special airlift. On the phone, all I heard was, "It's dangerous. Get out of there!" in a thick British accent. I just learned that my insurance was useless and it shattered my pride.

In the world, we rely on and put our trust in various kinds of insurance just in case. For sure, we should have health insurance, auto insurance, rental insurance, and so on. But if we put our trust in them and we take pride in them, it becomes a totally different story. The psalmist knows that those who have chariots and horses would win a battle. So, people take pride in them. However, the psalmist insists that people of God take pride "in the name of the LORD" (20:7). What are you proud of? Worldly possessions? Or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수요일·Wed 11 1 2022 May

#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함

Everything Belongs to the LOR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 ♬ 새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 묵상·**시편 24:1**-6

통독·시편 22-24편

-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 2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 5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 6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instructs us that we should be clean in and outside in order to stand in God's holy place.

(Hymn 8)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Meditation • Psalm 24:1-6

Reading Plan · Psalm 22–24

- <sup>1</sup>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 <sup>2</sup>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 3 Who may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 4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ear by a false god.
- <sup>5</sup> They wi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and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 6 Such is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God of Jacob.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4절) Who shall stand in God's holy place? (24:4)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5절)

What would those who have clean hands and pure hearts receive from the LORD? (24: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Who Shall Enter into the Temple?

성지 순례이든지 아니면 고고학 연구에 참여하든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지루한 일입니다. 벤구리온 공항의 탑승 전 보안 검색은 매우 빡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공항 입구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입구에서 무장 경비원이 공항에 오는 모든 차량을 확인합니다. 몇몇 차는 길 밖으로 세워지게도 됩니다.

무작위로 차를 고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발굴단장은 공항의 보안요원들은 특별한 훈련과정을 거친 정예 병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 만 아무 잘못이 없거나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보안 검색을 두려워할 필 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런 철저한 보안은 그들이 이용할 공항 과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좋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차원의 선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시편 기자는 거룩함의 두 가지 측면, 즉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4절). 그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제도적 그리고 도덕적 성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공항에 가서 탑승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Whether it is after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 or participating in archaeological research, leaving Israel is always hard and tedious. The pre-boarding security screening at the airport is very tight. Not only that, some people may even have trouble at the entrance of the airport. At the entrance, an armed guard checks every car coming to the airport, and some cars were pulled over.

I heard they don't pick cars randomly. My excavation director told me that the security at the airport were elite soldiers who went through a special training process. But those who didn't do anything wrong or don't have anything to hide don't have to be afraid of the security check. For them, this tight security ensures the safety of the airport and airplanes as well.

The psalmist also talks about screening. Those who want to ascend the hill of God and stand in His holy place should be holy. In this psalm, the psalmist specifically provides us with two different aspects of holiness: clean hands and pure hearts (24:4). It is along the way of the Priestly tradition found in the book of Leviticus. The tradition talks about ritual and moral purities. If we want to go to the airport and get onboard, we should be "clean." So does our way of holiness. We should have both clean hands and pure heart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П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48일·Thu 12

2022 May

# 하나님의 심판을 구함

Seeking God's Judgmen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행악자와 함께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 새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묵상・시편 26편

통독·시편 25-27편

- 1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 2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 3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 에 행하여
- 4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 5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 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 7 감사의 소리를 들려 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 이다
- 8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 9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 지 마소서
- 10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 11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12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 와를송축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insists that those who want vindication from God should not be with evildoers but abide in God.

(Hymn 406) I Have Found Sweet Rest

# Meditation • Psalm 26

Reading Plan · Psalm 25-27

- <sup>1</sup> Vindicate me, LORD, for I have led a blameless life; I have trusted in the LORD and have not faltered.
- 2 Test me, LORD, and try me, examine my heart and my mind;
- <sup>3</sup> for I have always been mindful of your unfailing love and have lived in reliance on your faithfulness.
- 4 I do not sit with the deceitful, nor do I associate with hypocrites.
- 5 I abhor the assembly of evildoers and refuse to sit with the wicked
- 6 I wash my hands in innocence, and go about your altar, LORD.
- <sup>7</sup> proclaiming aloud your praise and telling of all your wonderful deeds.
- 8 LORD, I love the house where you live, the place where your glory dwells.
- <sup>9</sup> Do not take away my soul along with sinners, my life with those who are bloodthirsty,
- 10 in whose hands are wicked schemes, whose right hands are full of bribes.
- 11 I lead a blameless life; deliver me and be merciful to me.
- **12** My feet stand on level ground; in the great congregation I will praise the LOR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 까? (2절)

When the psalmist wants vindication from God, what does he ask God to do? (26:2)

시편 기자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6-7절) While the psalmist was going through a hard time, what did he do? (26:6-7)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To Be Vindicated

2014년 어느 날 키부츠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공습 경보와는 달랐습니다. 학생들과 오후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울린 알람은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커뮤니티 식당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산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가서 여권을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발굴 현장에 가보니 온 지역이 검은 재로 뒤덮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 검은 재에 뒤덮였습니다. 발굴 중에도 코를 풀거나 침을 뱉으면 검은 재가 함께 나왔습니다. 발굴하는 지역이다 타서 재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진흙"에서 놀면 조만 간 "진흙"이 우리 몸에 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다면 "진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갖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One day in 2014 in a kibbutz, I heard an alarm. It was different from the air raid siren. The alarm broke the peaceful afternoon while we were having an afternoon lecture. We had to go to the community dining hall. Immediately! When we went outside, we all could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Wildfire. We couldn't even go back to our room and take our passports.

Next day, when we went up to our excavation site, we could see that the whole region was covered with black soot. Since then, everyday we were covered with black soot. Even during the dig, when we spit or blew our nose, we saw black soot. It was inevitable because our excavation field was burnt and covered with ash.

In our daily life, whether it is our churches or workplaces, if we play in the "mud," sooner or later, we'll get "mud" on us. If we want to become clean, then we must distance ourselves from the "mud." That is one way that we can have a clean heart and mind. We should place our feet on a clean ground. Then, we may ask God for vindication. Where do you find your ground for your heart and min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13

2022 May

#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Revealed God's Glory and Power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장엄하고 기묘한 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 새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 묵상・시편 29편

통독·시편 28-30편

- 1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립지어다
- 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 3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 도다
- 5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 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 6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룐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 7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 8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 9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 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 워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ascribes all majestic and wondrous works of the world to God.

[7] (Hymn 428) There's Sunshine in My Soul Today

Meditation • Psalm 29

Reading Plan · Psalm 28–30

- <sup>1</sup> Ascribe to the LORD, you heavenly being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 <sup>2</sup>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 <sup>3</sup> The voice of the LORD is over the waters; the God of glory thunders, the LORD thunders over the mighty waters.
- 4 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 the voice of the LORD is majestic.
- 5 The voice of the LORD breaks the cedars; the LORD breaks in pieces the cedars of Lebanon.
- 6 He makes Lebanon leap like a calf, Sirion like a young wild ox.
- <sup>7</sup> The voice of the LORD strikes with flashes of lightning.
- 8 The voice of the LORD shakes the desert; the LORD shakes the Desert of Kadesh.
- <sup>9</sup> The voice of the LORD twists the oaksand strips the forests bare. And in his temple all cry, "Glory!"
- 10 The LORD sits enthroned over the flood; the LORD is enthroned as King forever.
- 11 The LORD gives strength to his people; the LORD blesses his people with peac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1-2절)

To whom does the psalmist ascribe all glory and splendor of the world? (29:1–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 합니까? (10-11절) Does the psalmist recognize God? (29:10-11)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여호와께 돌이키라 Ascribe to the LORD

약 10년 전, 제가 속한 발굴 연구의 발표를 위해 어느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발굴 감독이 회의 프로그램을 열고 저희 프레젠테이션 안내가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며 "보이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겨…"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표자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자에 외부 협력자의 이름을 넣어 그의 이름만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학술 출판에는 기고자의 이름을 나열하는 매우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연구과정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책임과 일의 분량을 잘못 전달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실수를 수정해야했습니다. 이 사소한 사건은 올바른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직장에 서든, 교회에 서든, 가정에 서든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종종 우리 탓으로 돌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본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편 기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온 세상을 창조했고 누가 우리를 그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그 공로를 돌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정직을 보여줄 것입니다

About 10 years ago, I was attending a conference presenting our excavation works. Our excavation director opened the program and showed me the page where our presentation was listed. "Do you notice?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do that..." He was talking about the presenter's name. I listed an outside collaborator first and only his name was listed in the program.

In academic publications, there is a very specific order for listing the names of the contributors. If the order gets mixed, it can become problematic because it has to do with crediting different workloads of the project. It has to do with honesty. I had to correct the mistake later. This petit incident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giving credit to the right person.

It is very relevant to our day-to-day life. Whether it is at our work-places, churches, or homes, when something good happens we tend to attribute it to us, but when something bad happens, we attribute it to others. But the psalmist here ascribes all awesome and wondrous things to God. What the psalmist does, not only has to do with his faith in God but also his honesty before God. Who created the whole world and let us live in it? To whom should we give the credit? It'll show our faith and honest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R일·Sat

2022 May

# 속죄의 기쁨

The Joy of Forgivenes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 새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묵상·시편 32:5-7

통독·시편 31-33편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 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 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 6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 워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셀라)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expresses his joy in forgiveness of his sin because now he can reestablish his relationship with God.

[7] (Hymn 369)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Meditation • Psalm 32:5-7

Reading Plan · Psalm 31–33

- <sup>5</sup> Then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did not cover up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 6 Therefore let all the faithful pray to you while you may be found; surely the rising of the mighty waters will not reach them.
- <sup>7</sup> You are my hiding place; you will protect me from trouble and surround me with songs of deliveranc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5절) How can we confess our transgression to God? (32:5)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 합니까? (7절) How does the psalmist confess God who he is? (32:7)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애스버 하이교하 가정시(//A)

애쉬번 한인교회, 강현식(VA) 엠마오연합감리교회, 김철기(V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죄의 인정 Acknowledging Our Sin

작년 이맘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비행 중 화장실 이용 식사 등, 긴 국제선 비행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쫓기는 등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에 앉았을 때 그리고 비행기가 비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팬데믹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지만, 승객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우리는 탑승하기 위해 여러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일화된 과정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 올라타는 것뿐입니다.

Last year around this time, I had to visit my family in Korea. I wondered how a long international flight during the pandemic would go, such as using the lavatory and eating during the flight. I was both curious and worried about these because I frequently heard news about incidents that happened on the airplane, like not wearing a facial mask properly, which resulted in the removal of the travelers from the airplane.

When I actually sat in the airplane and when the airplane began to fly, I could enjoy all the things that I did before the pandemic. Although I had to wear a mask all the time except for when eating and drinking, it was possible because all passengers were tested negative. I believe the airplane was a safe place from the Coronavirus because only those who tested negative could go onboard.

Coming to God and abiding in God is the same. Those who tested positive for their sins can't come to God. The psalmist knows this fact. In order to go to God, the psalmist acknowledges his sin and confesses his iniquity. Then God will forgive his guilt, which means now he can go to God. For the Coronavirus, we had to go through different steps in order to go onboard. But for coming to God, it is an all-in-one process, which is already done. The only thing that we have to do is to confess our iniquity and go onboar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15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
	)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주님 찬스"

이강목사님아침묵상\_가득한연합감리교회, NJ

"내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후 12:9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키가 작고 왜소해서, 언제나 꼬마로 놀림을 받았고, 아이들로부터 쉽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교회에서 갖게 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출석하던 동네 감리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도 그의 가슴을 울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가 들었던 "내은 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는 말씀 구절은 그에게도 운명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왜소한 그를 어린 나이에 강제로 사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왜소함 때문에 장교로 임관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육체적 결함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은 오직 그 말씀이 주는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 장교가 더 필요하게 되자, 모병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원하여 북군 장교로 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이때도 상관이나 부하들 로부터조차 장교로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미 적응이 되었던 그는 이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실하고 꿋꿋한 모습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대통령으로도 당선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바로 미국 18대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십 불짜리 미국 지폐의 인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겪는 고통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의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는 악의 작용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는 악이 창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려고 우리를 몰아가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후에 주신 말씀이 펀치 라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의 역설입니다. 약할 때 강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찬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 찬스"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를 사용하며 그것도 실력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님 찬스"를 사용하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실력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짐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주님 찬스"입니다.

1978년에 처음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아직도 가야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스캇 펙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은 자신의고통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정서적 장애가 그로 하여금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기 속에 숨이 막히는 듯한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죽을 것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아시스를 두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 찬스"입니다.

오주여

우리 삶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찬스"를 사용하게 하소서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sup>ваеч</sup> 16

2022 May

##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언

Testimony of God's Goodnes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 시고 그를 확난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 ♬ 새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묵상·시편 34:4-10

통독·시편 34-35편

- 4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 움에서 나를 거지셨도다
- 5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 6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 7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9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 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는모든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Reading Insight

From his own personal experience the psalmist knows that when he seeks God, He will answer and deliver him from the troubles.

7 (Hymn 408) I Can not Tell thee Whence it Came

Meditation • Psalm 34:4-10

Reading Plan · Psalm 34–35

- <sup>4</sup>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 5 Those who look to him are radiant; their faces are never covered with shame.
- 6 This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 **7**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 8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 **9** Fear the LORD, you his holy people,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 10 The lions may grow wea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When the psalmist seeks God, what happens to him? (34:4)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 What do those who fear God want? (34:9)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VA) 와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을 구하라

Seek God to Be Answered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어느 주일 저는 텍사스 남부 국경 마을로 향했습니다. 멕시코 쪽 국경에 있는 텐트시티와 미국 쪽에 있는 난민 수용소 그리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재판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텐트시티에는 이름이 나열된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대기자 명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1차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간주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난민 수용소 중 한 곳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자매들이 운영하는 한 난민캠프에 갔을 때 최근에 북한에서 온 여성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떤 일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텐트시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녀는 부름을 받아 난민 수용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의 좋은 점은 우리가 긴 줄을 서서 무기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개인적인 것이며 핫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광채를 내기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5절). 더 나아가 그는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One Sunday before the pandemic, I headed down to the southern border town in Texas. I was going to visit a "tent city" on the border on the Mexican side and refugee camps and courts where those who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stand before a judge on the US side. In the tent city, there was a post listing names. I heard that it was a waiting list for those who had petitioned for refugee status for the US.

Those who are called upon can have an initial interview. And those who have legitimate reasons to be considered refugees can be accepted into one of the refugee camps. In one refugee camp run by Catholic sisters, I heard that recently they had a woman from North Korea. We couldn't imagine how she got here and what she would have gone through. Anyway, among thousands of people in the tent city, she was called upon and was able to go to the camp.

A good thing about seeking God's help is that we don't have to stand in a long line and wait for an indefinite time. All our inquiries and supplications are personal and they can be delivered to God through a hotline. This is the reason why the psalmist confidently asks others to be radiant (34:5). Furthermore, he believes that the angel is around those who fear God. But there is one premise to have all these benefits. We must seek God first.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화요일·Tue 17

##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움

Life-giving Care of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 ♬ 새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묵상·시편 36:5-12

통독·시편 36-37편

- 5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 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 6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 나이다
- 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 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 10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 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 12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 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 Reading Insight .....

Out of his own experience, the psalmist praises the steadfast love of God.

(Hymn 445)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Meditation • Psalm 36:5–12

Reading Plan · Psalm 36-37

- 5 Your love, LORD, reaches to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to the skies.
- <sup>6</sup> Your righteousness is like the highest mountains, your justice like the great deep. You, LORD, preserve both people and animals.
- 7 How priceless is your unfailing love, O God! People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 8 They feast on the abundance of your house; you give them drink from your river of delights.
- **9** For with you is the fountain of life; in your light we see light.
- **10** Continue your love to those who know you, your righteousness to the upright in heart.
- 11 May the foot of the proud not come against me, nor the hand of the wicked drive me away.
- 12 See how the evildoers lie fallen—thrown down, not able to ris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7절) Where can we take refuge? (36:7)

하나님은 그의 변함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까? (10절)

To whom will God continue His steadfast love? (36:10)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와싱톤사귐의교회, 김영봉(VA) 와싱톤제일교회, 정성호(V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헤세드

God's Holiness and His "Hesed" (Grace)

발굴이 없던 어느 여름, 발굴 감독은 저를 미츠페 라몬(Mitzpe Ramon) 이라는 네게브 사막의 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사해와 아카바 만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침식 계곡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랜드캐니언에 있는 협곡 하나 또는 한라산 정상의 화산 분화구 같지만 훨씬 더 큰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800m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경외감에 빠집니다.

경이로운 광경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는 방문객을 한없이 작게 느끼게합니다. 이것은 약 1억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1억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왔다가 갔지만, 분화구는 그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이름의 호텔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분화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기시켜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정제된 물건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의 거룩하심은 순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그분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한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고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 안에서 이 순결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One summer during the off season, my excavation director took me to a place in the Negev desert called Mitzpe Ramon. It is in between the Dead Sea and the Gulf of Aqaba. It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erosion valleys. Simply put, it is like a single canyon in the Grand Canyon or a volcano crater on top of Hanla Mountain, but larger, much larger. Anyone who stands at the edge of the cliff and looks down to the bottom, more than 800m below, becomes awestruck.

Not only the awesome scene, but also its long history makes visitors feel infinitely small. It has been there for about 100 million years. People came and went for the past 100 million years, but the crater stands there throughout time. It feels like it was there when God created the world. So, it is not weird to see a hotel named Beresheet, "In the beginning."

The crater reminds us of the unchanging love of God for us. That which doesn't change over the course of years has a pure nature. Like gold or diamond, purified objects don't change. Holiness is the same. God is holy and His holiness is pure. So, love, one way that expresses His holiness, doesn't change. We should strive for this purity in holiness because that is the one and only way we can be with holy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22 May

### 회개와 치유

Penitence and Healing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고통과 임박한 위험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 새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 묵상·시편 38:1-11

통독·시편 38-39편

- 1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 2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 나이다
- 3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 할 수 없나이다
-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 이다
- 6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 니나이다
- 7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 8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 9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 10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 났나이다
- 11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 Reading Insight ·····

Out of his suffering and imminent danger, the psalmist comes to know who he is and who God is for him.

7 (Hymn 272)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Meditation • Psalm 38:1-11

Reading Plan · Psalm 38–39

- <sup>1</sup> LORD, do not rebuke me in your anger or discipline me in your wrath.
- <sup>2</sup> Your arrows have pierced me, and your hand has come down on me
- <sup>3</sup> Because of your wrath there is no health in my body; there is no soundness in my bones because of my sin.
- 4 My guilt has overwhelmed me like a burden too heavy to bear.
- <sup>5</sup> My wounds fester and are loathsome because of my sinful folly.
- **6** I am bowed down and brought very low; all day long I go about mourning.
- <sup>7</sup> My back is filled with searing pain; there is no health in my body.
- 8 I am feeble and utterly crushed; I groan in anguish of heart.
- <sup>9</sup> All my longings lie open before you, Lord; my sighing is not hidden from you.
- 10 My heart pounds, my strength fails me; even the light has gone from my eyes.
- 11 My friends and companions avoid me because of my wounds; my neighbors stay far awa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병의 원인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How does the psalmist confess the cause of his sickness? (38:3)

시편 기자는 병이 났을 때 무엇을 원합니까? (9절)

In his sickness, what does the psalmist want to have? (38:9)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애틀연합감리교회, 박세용(WA) 좋은씨앗교회, 정요셉(W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고통을 통해 오는 올바른 이해

A Right Understanding Comes through Suffering

우리가 외국에 갈 때 경험하고 싶은 매혹적인 것 중 하나가 현지 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으며 음식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최악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여름 발굴을 하던 중 키가 크고 건장했던 남학생은 나날이 쇠약해 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발굴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빵 한 조각만 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키부츠 식당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이 훌륭했습니다. 현대판 지중해식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빵 조각과 물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4세 기경 이집트 사막에 있던 수도사들이 했던 일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먹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그것이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정말 힘든 시간을 겪을 때까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When we go to foreign countries, one of the fascinating things that we want to experience is local foods. However, it can be a downside for some people and can give us a seriously bad time if the foods don't work with us. One summer when excavating, a college boy, who was tall and well-built, grew weaker and weaker day after day.

At one point, he couldn't get up early in the morning. So, he missed the day and the next day. Later, what we all found was that he had been eating only a piece of bread everyday. For me, all the foods that the kibbutz dining hall provided for us were wonderful. A modern version of a Mediterranean diet! However, it didn't work for him. So, what he could eat was only a piece of bread and water. He literally practiced what 4th-century monks in the Egyptian desert did.

At first, he couldn't admit the fact that he was so picky and his eating caused his illness. Believe it or not, the same thing happens to us. Until we face a dire situation and go through a real hard time, we hardly look at ourselves and admit wrongs in us. When we suffer from illness, I'm sure we should seek divine healing. But while we're praying, we also should examine ourselves whether our hearts are in the right place. What the psalmist does is to confess that he is a sinner before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목요일·Thu 19

2022 May

##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

Seeking God's Mercy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 ♬ 새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묵상**·시편 40:11**−14

통독·시편 40-41편

- 11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 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 12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 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 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 13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 14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 Reading Insight

In the middle of suffering, the psalmist seeks God's salvation.

7 (Hymn 542)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Meditation • Psalm 40:11-14

Reading Plan · Psalm 40-41

- 11 Do not withhold your mercy from me, LORD; may your love and faithfulness always protect me.
- 12 For troubles without number surround me; my sins have overtaken me, and I cannot see. They are more than the hairs of my head, and my heart fails within me.
- **13** Be pleased to save me, LORD; come quickly, LORD, to help me.
- 14 May all who want to take my life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may all who desire my ruin be turned back in disgrac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 니까? (11절) What does the psalmist ask God for? (40:11)

시편 기자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What caused the psalmist to go through suffering? (40:12)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 박용규(WA) 맑은 물 펠로쉽 한인교회, 김재선(W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인간의 노력 vs. 하나님의 도움

Human Efforts vs. God's help

저의 첫 직장은 파트타임으로 그림 액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일은 액자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사진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진에 묻은 작은 지저분한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젖은 천으로 사진을 닦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을 물에 적셔 사진을 닦았고 곧 사진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사용한 것은 물이 아닌 특별한 용액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손님이 가져온 사진을 엉망으로 만든 후 저는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액자 가게 주인은 이후 저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제가 모르는 문제에 직면할 때면 먼저 정보를 찾아보거나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하려합니다. 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그 것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에 근거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한합니다.

My first job, though it was a part time position, was working at a customer framing shop. My job was to make frames and assemble them. One day, while I was working on a beautiful photograph, I found that there was one spec on the photo. I remember the owner of the store cleaned photographs with a wet cloth. So, I did that and messed up the photograph.

It was not a cloth wet with water but some special solution. I didn't know that. After I messed up the photograph that a customer brought in, I told the owner. And he had to deal with the customer later. After this incident, whenever I faced some problems or things that I didn't know about, I tried to look for information or to ask for help from others.

I believe it is our human nature that when we face troubles, we try to get over them by our efforts until we realize that the things are beyond our abilities and in fact we can't handle them. Then, we go to God and seek God's help. How foolish it is. Our reality would be like the one that the psalmist was experiencing. Even though we seek God, we may have to wait patiently. It is a foolish thought that we first try our way and if it doesn't work, we turn to God. We should know that our efforts will only be valid as long as they are based on faith that our true salvation comes from God.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

2022 May

##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God Defends the Righteou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 ♬ 새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 묵상・시편 43편

통독·시편 42-44편

- 1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 2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슬 프게 다니나이까
-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 4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 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asks God for his vindication to prove his innocence.

(Hymn 368) Heart Longings

#### Meditation • Psalm 43

Reading Plan · Psalm 42–44

- 1 Vindicate me, my God, and plead my cause against an unfaithful nation. Rescue me from those who are deceitful and wicked
- 2 You are God my stronghold. Why have you rejected me? Why must I go about mourning, oppressed by the enemy?
- <sup>3</sup> Send me your light and your faithful care, let them lead me; let them bring me to your holy mountain, to the place where you dwell.
- <sup>4</sup> Then I will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I will praise you with the lyre, O God, my God.
- 5 Why, my soul, are you downcast?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2절) What is the reason for him to mourn? (43:2)

시편 기자의 적들이 그를 하나님께 로 인도한다면 그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4절)

What does he want to do if his enemies bring him to God? (43:4)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WI)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W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정의와 거룩함 Justice and Holiness

이스라엘 여행을 갈 때 이스라엘 공항에서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항에 억류된 사례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 문밖에서 기다리던 보안요원에게 신분 확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의 가장 지루하고 힘든 부분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입니다. 공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우리 발굴에서 버려진 도자기 조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보안요원이 제가 고대 유물을 밀수하는 줄 알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니 검사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 비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사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이유는 그의 독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가 성결의 길을 걷고 있는 한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그를 입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For a trip to Israel, many unhappy incidents happen at the airport in Israel. I heard a couple of cases where student volunteers were detained at the airport for various reasons. One time, security took me as soon as I walked out of the airplane and checked my id. However, the most tedious and difficult part of the trip is leaving Israel. At the airport, almost everyone has to go through a THROUGHGOING inspection.

For the first couple of times, I was really nervous about the inspection because I had discarded pottery sherds from our excavation. I was afraid that the security thought that I was smuggling ancient artifacts. Later on, my thoughts changed. Since I didn't do anything wrong, there was no reason to be afraid of the inspection. Rather, I thought it would be ok to have a tighter inspection because that would ensure my flight's safety.

In Ps. 43, the psalmist demands God's vindication. We should know that the reason why the psalmist asks God for his vindication is not because of his self-righteousness but his faith in God. That is, as long as he is walking on the way of holiness, God is with him and God will vindicate him from the world. That's why the psalmist says that he will be joyful and praise God. We need that confidence in God and that is fai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R일·Sat

2022 May

##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God Defends His Peop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 ♬ 새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 묵상・시편 46편

통독·시편 45-48편

-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도움이시라
- 2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셀라)
- 4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 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6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 때 땅이 녹았도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 8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 드셨도다
- 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 10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 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셀라)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confesses that no matter what happens God will be his refuge.

7 (Hymn 400) Jesus, Hide Me

#### Meditation • Psalm 46

Reading Plan · Psalm 45-48

- 1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n ever-present help in trouble.
- <sup>2</sup> Therefore we will not fear, though the earth give way and the mountains fall into the heart of the sea,
- 3 though its waters roar and foam and the mountains quake with their surging.
- 4 There is a river whose streams make glad the city of God, the holy place where the Most High dwells.
- **5** God is within her, she will not fall; God will help her at break of day.
- 6 Nations are in uproar, kingdoms fall; he lifts his voice, the earth melts.
- 7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 8 Come and see what the LORD has done, the desolations he has brought on the earth.
- <sup>9</sup> He makes wars cease to the ends of the earth. He breaks the bow and shatters the spear; he burns the shields with fire.
- 10 He say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 11 The LORD Almighty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Why does the psalmist say that we don't have to fear? (46:1)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0절) When troubles come, what does God ask us to do? (46:10)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참 아름다운 연합감리교회, 김성근(WI) 게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W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지형적으로 대부분의 고대 도시는 텔 (tel/tell)이라는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중 많은 도시들이 요새화되어 성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방어가 목적이었습니다. 적들이 침략했을 때 주민들은 요새화된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형적 요건과 요새는 방어자들에게 유리함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요새화된 도시와 마을은 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은 초강대국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새는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1절)이었습니다. 그들을 포위하는 적들은 갈증에 시달릴 수 있지만 그들은 신선한 물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새도 부서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앗수루 산 헤립 왕은 유다에서 성벽으로 둘러싸인 46개 도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와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요새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강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업은 훨씬 더 강하고 무적의 요새를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참된 "도피처와 힘"이심을 알기를 요구합니다.

Topographically, most ancient towns are located on top of a hill called tell. Many of them were fortified—a wall encircled the town. It was for defensive purposes. When enemies invaded, inhabitants went into the fortified cities. And a siege began. The topography and fortification gave a vantage point to those who were defending.

Usually most fortified cities and towns secured water sources. So, the ancient Israelites could fight against super powerful empires. For them, their fortifications were thei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46:1). While enemies besieging them could suffer from thirst, they could enjoy fresh water. However, these fortifications could be breached and toppled down. King Sennacherib claimed that he destroyed 46 strong walled cities in Judah.

Fortifications are made by human hands and therefore it can't be our ultimate "refuge and strength" when we face troubles. But when we look at ourselves, we constantly seek to have fortifications in our life. We work hard to build our own strong fortifications where we can enjoy tranquility and a secure life. Our studies are an investment to have much stronger and invincible fortifications in the future. So, we live a busy life. In this Psalm, God asks us to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our God, the true "refuge and strength."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П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2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5월에 가정을 다시 생각한다

림학춘 목사\_라구나힐스교회, CA

삼을 캐는 심마니가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를 세 번 외친다. 이것은 '동작 그만' 이란 명령이다. 신중하게 표시를 하고 "삼을 찾으시오" 하면 비로소 동료들이 인근에서 삼을 찾기 시작한다. 심마니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이 있다. 삼을 캘 때는 실뿌리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글을 "심봤다!"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

얼마 전 경북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로부터 미국에 사셨던 할아버지를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할아버지 김승길, John Kim, 1910~3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 이후 차이나타운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심마니가 산삼을 캐듯 수소문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봤다." 상항교회 100년사라는 깊은 산에서 김승길/김명신을 찾았다. 독립운동을 이끄신 찬란한 흔적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았다.

확인된 자료를 보내니 "확인해 보니 두 분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답신과 함께 추가 요청이 있었다. "1903~4년쯤 하와이 최초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도 출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김승길이라는 분이 이민자 혹은 교인 명단에 있는지 확인도 부탁합니다." 심마니는 하와이로 연락을 했다. "김승길 Seung Kil Kim,만 26세, 독신, 평북 순천 출생, 1903년 10월 15일 도착. 그 이후 그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음." 곧 샌프란시스코로 가셨기에 기록이 더 이상 없었다. 가족의 뿌리는 100년 산산삼보다 귀하다.

"가정은 나의 옥토이다. 나는 거기에서 나의 내적인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 이름처럼 진주 같은 글과 진주 같은 사랑을 남긴 펄 벅(Pearl S. Buck) 여사는 가정을 좋은 땅에 비유했다. 좋은 땅이란 제목은 예수께서 하신 첫 스토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왔을 것이다. 어떤 씨는 길가에, 돌짝에, 가시덤불에 흩어져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중국 가정사를 배경으로 '대지'라는 3부작 소설을 완성했는데, 1부작 'The Good Earth'는 퓰리처상을, 3부작 '분열된 일가'로 193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그녀는 구한말을 소재로 한 '살아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썼다. 그는 이 소설에서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 나라는 주변의 세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는 여러 세기 동안 잘 알려져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서구사람들에게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은 나라다"라고 적고 있다.

'살아있는 갈대'라는 제목도 시편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꺽지 않으시는'을 연상케 한다. 구한말과 해방기까지의 한국은 꺼져가는 심지였고, 상한 갈대였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한국인 가족의 4대를 추적한 증언 같은 글을 남긴 것이다. 전쟁과 늑탈이라는 참화로 인해 번진 들불은 순식간에 한민족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 잿더미로 변한 토지에 겨울은 남은 싹마저 다 얼어붙게 했다. 봄이 오는 들녘에 갈대의 싹이 돋고 있었다. 태워도 태울 수 없었던 땅속의 뿌리에서 생명이 움을 돋아내는 것이었다. 한국의 역사를 추적하며 글을 쓰던 펄은 한국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기꺼이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다. 어찌 고향 땅에서 만인가? 고국을 떠났어도 새로운 땅에 살아있는 갈대로 뿌리를 내린 이가 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이다.

교회는 확대된 가족이다.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에 한인들이 새로 뿌리를 내린 지 100년이 넘었다.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확대된 가족이었다. 특히 디아스 포라가 된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국이 위기에 처할 때면 서슴없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열매들을 보내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 했다.

## <sup>ваев</sup>·моп 23

2022 May

## 받아들일 수 있는 재물

The Acceptable Sacrific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거부하신다고 말합니다.

#### ♬ 새420장 너 성결키 위해

#### 묵상·**시편** 50:7-15

통독·시편 49-50편

- 7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 8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 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 임이로다
-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워을 갚으며
-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speaks of God's rejection of perfunctory sacrifice.

(Hymn 420) Take Time to be Holy

Meditation • Psalm 50:7-15

Reading Plan · Psalm 49-50

- **7** "Listen, my people, and I will speak; I will testify against you, Israel: I am God, your God.
- <sup>8</sup> I bring no charges against you concerning your sacrifices or concerning your burnt offerings, which are ever before me.
- **9** I have no need of a bull from your stall or of goats from your pens,
- 10 for every animal of the forest is mine, and the cattle on a thousand hills.
- 11 I know every bird in the mountains, and the insects in the fields are mine.
- **12** If I were hungry I would not tell you, for the world is mine, and all that is in it.
- 13 Do I eat the flesh of bulls or drink the blood of goats?
- **14** "Sacrifice thank offerings to God, fulfill your vows to the Most High,
- 15 and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 Why does God say that he will not accept sacrifice? (50:11)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 니까? (14절) What should we offer to God? (50:14)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몽고메리주님의 교회, 유혁재(AL)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A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받아질 수 있는 제물 The Acceptable Sacrifice

과거와 달리 요즘은 미국 내 다른 주, 심지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매우 편리 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음식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 무언가를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송 추적 서비스에서는 물품이 배달되었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음식이 맛있었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너 지금 제정신이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으셨고 다만 제가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선물이 좋았고 맛있게 먹고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제 에피소드는 일종의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과 노력을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유하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압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또한 드리고 있습니까?

Unlike in the past, nowadays it is very convenient to send gifts to families and friends in other states or even in Korea. There are many online services through which we can send some goods to them. One time, I sent food to my mother in Korea. I didn't tell her that we sent something. A tracking service said that the package was delivered but I didn't hear anything from my mother.

When I couldn't bear it, I called my mother. When she picked up the phone, I expected to hear that she liked the food. However, unlike my expectation, she said, "Are you out of your mind?" In fact, she wasn't that upset, but she wanted me to focus on my ministerial duties. After exchanging a few words, she reluctantly admitted that she liked and enjoyed the gift. My episode had a sort of a happy ending.

If we look back on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also know that we do similar things. We offer God our sacrifices from our perspectives—we offer God what we think is good in our eyes. And we justify our desires and endeavors in the world by saying that we want to give God the highest things in the world. We know that it is our desires to have the world, not the desire that we want to give our hearts to God. In this psalm, the psalmist asks us to check our hearts: Do you offer your hearts when you present God with your sacrific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ne Prayer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022 May

## 기만자에 대한 심판

Judgment on the Deceitful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안전을 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 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 새328장 너 주의 사람아

## <sub>묵상</sub>·시편 52편

통독·시편 51-53편

-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 2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 하는도다(셐라)
- 4강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 리로다(셀라)
- 6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 7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 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 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 름을 사모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warns that God will judge those who seek security in the world and boast about it.

🎜 (Hymn 327) Rise up, O Men of God

## Meditation • Psalm 52

Reading Plan · Psalm 51-53

- <sup>1</sup> Why do you boast of evil, you mighty hero? Why do you boast all day long, you who are a disgrace in the eyes of God?
- <sup>2</sup> You who practice deceit, your tongue plots destruction; it is like a sharpened razor.
- <sup>3</sup> You love evil rather than good, falsehood rather than speaking the truth.
- 4 You love every harmful word, you deceitful tongue!
- 5 Surely God will bring you down to everlasting ruin: He will snatch you up and pluck you from your tent; he will uproot you from the land of the living.
- <sup>6</sup> The righteous will see and fear; they will laugh at you, saying,
- 7 "Here now is the man who did not make God his stronghold but trusted in his great wealth and grew strong by destroying others!"
- 8 But I am like an olive tree flourishing in the house of God; I trust in God's unfailing love for ever and ever.
- **9** For what you have done I will always praise you in the presence of your faithful people. And I will hope in your name, for your name is goo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영원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십니까? (1-4절) Whom God will break down forever? (52:1-4)

악을 행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편 기자는 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7절) Not only those who do wrong, the psalmist says who else will be judged by God? (52:7)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소망연합감리교회, 조선욱(AR)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형권(AR)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두 발을 하나님께 두라 Put Both Feet in God

교회에서 우리는 회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보험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세의 삶도 확보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문제는 그들이 두 발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험이나 은퇴 계획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 사회에 악을 가져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에 대 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겉보기에 사악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해야 할 매우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7절). 우리는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못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든 것 앞에 두지 않고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이기적인 욕심도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절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In the church, we can see some people who are in a gray area, one foot in God and the other in the world. They think coming to church is their insurance. This tendency appears far higher for those who have. They think that since they secured their life in the world, they also want to secure the life after. That's not bad at all but the problem is that they don't want to put both of their feet in God. For them, having faith is adding an extra layer of insurance or a retirement plan.

When we think about wickedness, it is something like harming innocent people or bringing evil to our society. Therefore, we believe that wickedness will be judged by God. The psalmist talks about this. However, he also talks about seemingly not-wicked acts. But more confusingly, it can be a very wise act that we must do from the worldly perspective.

That is not taking refuge in God but trusting in abundant riches and seeking refuge in wealth (52:7). We tend to think that unless we do something that actively harms others or goes against God, whatever we do,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the psalmist warns us that our selfish desires that seek material abundance without putting God first is also the same as doing evil. So, we should check ourselves whether v. 7 is our own pictur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5

2022 May

#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God Will Listen to the Crie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 ♬ 새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 묵상·**시편** 55:16-23

통독·시편 54-56편

- **16**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 시리로다
-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 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 18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생명을 구워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 19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나이다
- **20**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 21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 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23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 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confidently asks us to call for help and to cast our burdens on the LORD.

(Hymn 209) From Every Stormy Wind that Blows

Meditation • Psalm 55:16-23

Reading Plan · Psalm 54–56

- 16 As for me, I call to God, and the LORD saves me.
- 17 Evening, morning and noon I cry out in distress, and he hears my voice.
- **18** He rescues me unharmed from the battle waged against me, even though many oppose me.
- 19 God, who is enthroned from of old, who does not change—he will hear them and humble them, because they have no fear of God.
- 20 My companion attacks his friends; he violates his covenant
- 21 His talk is smooth as butter, yet war is in his heart; his words are more soothing than oil, yet they are drawn swords.
- 22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be shaken.
- 23 But you, God, will bring down the wicked into the pit of decay; the bloodthirsty and deceitful will not live out half their days. But as for me, I trust in you.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16~17절)

When the psalmist faces difficulty, whom does he call for help? (55:16–17)

하나님은 누구의 짐을 지고 누구를 붙들어 주실 것인가? (23절) Whose burden would God take and whom would He sustain? (55:23)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김찬홍(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조형(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당신의 짐을 던지십시오 Cast Your Burden

여러분처럼 저는 최근에 첫 배심원 임무를 해보았습니다. 대배심 선출을 위한 심사 과정을 거친 첫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입증 책임"이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이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두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우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 임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호자와 요새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름으로써(16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함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23절).

As some of you have done before, recently I had my first jury duty. On the first day when the court was going through a screening process to select the grand jury, the phrase that I heard the most was "the burden of proof." That is, in criminal cases, the burden of proving the defendant's guilt is on the prosecutor.

We may apply this concept to our faith journey as well. As we have seen in other psalms, we confess that God is our defender whom we can rely upon and a stronghold where we can take refuge. But the psalm points out two problems that we have. The first is that we don't call upon God. Rather, we try to defend ourselves and rely on ourselves. The second is that when we have a heavy burden, we try to prove that we can carry the burden ourselves.

These are our humanistic determinations that we can live by ourselves without God. These attitudes show that we don't trust God and that we don't consider God as our defender and stronghold though the burden to protect and sustain us is on God. We can show our faith in God by calling upon God (55:16) and be righteous in God (55:23).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Box$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6**

2022 May

#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God Will Rescue His Peop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 ♬ 새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 묵상•**시편** 60:1−5

통독·시편 57-60편

- 1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 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 2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 4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 게 하셨나이다(셀라)
- 5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 으로 구워하시고 응답하소서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checks his relationship with God when troubles come.

🎜 (Hymn 479) I'm but a Stranger Here

Meditation • Psalm 60:1-5

Reading Plan • Psalm 57–60

- <sup>1</sup> You have rejected us, God, and burst upon us; you have been angry—now restore us!
- <sup>2</sup> You have shaken the land and torn it open; mend its fractures, for it is quaking.
- <sup>3</sup> You have shown your people desperate times; you have given us wine that makes us stagger.
- 4 But for those who fear you, you have raised a banner to be unfurled against the bow.
- **5** Save us and help us with your right hand, that those you love may be delivere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방어가 무너진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1절)

To whom does the psalmist attribute the breakage of his defenses? (60:1)

누구에게서 구원이 옵니까? (4-5절)

From whom does salvation come? (60:4-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When Troubles Come

어느 여름 발굴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굴이 끝난 후, 저희는 도구를 현장에 두고 왔지만, 다음날 작업을 재개했을 때 도구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캠프에서 더 많은 도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구를 잘못 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단순한 실수든 나쁜 장난이든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범인을 찾았습니다. 베두인 아이들이 도구를 훔쳐 광야 어딘가에 보관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기 시작합 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징계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One summer during the excavation, a strange thing happened. After excavation, we left our tools at the site, but the next day when we resumed the work, we found that we didn't have enough tools. So, we had to bring more tools from the base camp. First, we thought that we had miscounted the tools. However, when the same thing happened for the next couple of days, we began to look for the one who caused this mishap, whether it was a simple miscounting or a bad prank.

In the end, we found the culprit. It was Bedouin kids who stole our tools and stored them somewhere in the wilderness. I believe the same thing happens in our life. When some trouble happens, we begin to look at what causes the trouble. And sometimes, we think that it is God who sends us the trouble because we think that we committed sin against God.

Sometimes, it may be true. But we can't always attribute bad things happening in our life as disciplinary acts of God. So, when trouble comes, it would be good to check whether we have a healthy relationship with God. Even though it is hard, we should be able to use troubles to focus more on God. When we do that, we can even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while we're going through a hard time. If we do, I'm sure that we may also experience God's deliverance as well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7

2022 May

#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

Assurance in God's Presenc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 ♬ 새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 묵상·시편 63:1-4

통독·시편 61-64편

-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 망하며 내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 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 3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 양할 것이라
- 4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 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earnestly seeks God when he goes through the wilderness of his life.

🎵 (Hymn 400) Jesus, Hide Me

## Meditation • Psalm 63:1-4

Reading Plan · Psalm 61-64

- <sup>1</sup> You, God, are my God, earnestly I seek you; I thirst for you, my whole being longs for you, in a dry and parched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 <sup>2</sup>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 and beheld your power and your glory.
- 3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s will glorify you.
- <sup>4</sup>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1절) When the psalmist is in the wilderness of Judah, what does he earnestly seek for? (63:1)

시편 기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Why does the psalmist hold onto God in the wilderness? (63:3)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성공의 사막에서 하나님 찾기

Seeking God in the Desert of Success

어느 날 발굴 현장에 있는 연구실에서 제가 부드러운 돌로 만든 고대의 작은 비드(구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물을 취급한 첫해에는 항상 감독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루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여가며 제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돌이라서 물로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에 비드를 대자마자 그것은 곧바로 녹아내렸습니다. 그 고대 유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육신의 목마름과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풀 수 있는 물과 배를 채울 음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더 나은 삶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세상에 서의 성공은 신앙 여정에서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One day in the lab in Israel, I was cleaning an ancient tiny bead made of soft stone. In the first year when I handled ancient artifacts, I always asked my director how to correctly handle them. But since I had become kind of experienced, I was doing whatever seemed to be reasonable. That day, since it was a stone, I thought that I could clean it simply with water. But as soon as I put the bead in the running water from the faucet, it melted away. Oops! I lost the ancient artifact for good.

The psalmist surely does seek God when he faces difficulties. This psalm is traditionally attributed to David. He sang this song when he was in the wilderness. One thing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that even though he faced physical thirst and hunger, he didn't seek water to quench his thirst and foods to fill his stomach. Rather, he earnestly sought God because he believed that God's steadfast love is better than life.

Somehow, we all do this, seeking God when we are in the wilderness. But not many do this because of their conviction that God's steadfast love is a better life. We do this because we want to preserve our life. That is not the only problem that we have. When things are going well, we don't seek God. We do it only when we have problems. So, for us, unlike our perception, our success in the world can become a wilderness for our faith journey. This psalm urges us that even when we are doing well, we should earnestly seek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er 🔲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R일·Sat 28

2022 May

#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찬양

Praise God Who Blesses His Peopl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기자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의 길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 ♬ 새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묵상・시편 67편

통독·시편 65-67편

- 1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셀라)
- 2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 4은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 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 다(셀라)
- 5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 으로 주를 차송하게 하소서
-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 님을 경외하리로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stresses that we should adjust our thoughts on blessings, that they are God's way of revealing His way in the world.

♬ (Hymn 80) There is no Name so Sweet

Meditation • Psalm 67

Reading Plan · Psalm 65-67

- <sup>1</sup>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on us—
- <sup>2</sup> so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 <sup>3</sup> May the peoples praise you,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 4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with equit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 <sup>5</sup> May the peoples praise you,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 <sup>6</sup>The land yields its harvest; God, our God, blesses us.
- 7 May God bless us still, so that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누구의 길이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2a절) According to the psalmist, whose way should be known? (67:2a)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2b절) What is for the way of God? (67:2b)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 God's Blessings for God

에나 지금이나 우리가 축복받고 싶어 하는 것은 변함없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1절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진 민수기 6장 24~26절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는 종종이 축복을 주일에 축도로 듣습니다. 현재 이 민수기의 축복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본문 중 하나입니다.

1979년에 예루살렘 근처의 매장 무덤에서 이스라엘 고고학자가 담배 꽁초 모양의 은 부적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펼치자 안쪽 면에 쓰인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민수기 6:24~26입니다. 고 고학자는 이 은 부적의 연대를 기원전 7세기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축복받고 풍요롭고 번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은 아닌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번성하여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곧 그의 구원 행위가 이땅에서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한다고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여 이땅에 있는 그의 구원 행위를 드러내려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hen and now, it seems like it is our unchanged nature that we want to be blessed. Verse 1 in this psalm is very familiar to us because of its similarity to Number 6:24–26, which is known as the priestly blessing. We often hear this blessing as a benediction on Sunday. Currently, this blessing from Numbers is one of the oldest pieces of evidence for the existence of the Old Testament.

An Israeli archaeologist found two cigarett-butt-like silver amulets in a burial tomb near Jerusalem in 1979. When they were unrolled, etched inscriptions were found. One of them is from Numbers 6:24–26. The archaeologist dates these silver amulets to the 7th century B.C.E.

We certainly want to live a blessed, prosperous and prosperous life, both in this world and in Heaven. However, we need to be very careful whether it is our selfish thoughts. The psalmist wants God to bless people not because we want to flourish and to be known in the world, but in order for God's way, which is His saving acts, to be known upon earth. We have to check whether we are asking God for His blessings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His saving acts for His people on earth.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MAY 29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교회는 언제 정상화될까?

한천영목사\_갈릴리선교교회, CA

요즘 주위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언제 정상화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한동안은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모임 그 인원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주일예배의 인원은 줄었습니다. 현재 주일예배 인원은 이전의 70% 수준입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으나, 아예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인원이 이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인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예배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줌(zoom)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는 기대 이상의 효과와 은혜가 있습니다. 평일(화~금) 인원이 15-20명 사이입니다. 토요일 인원은 20명 이상입니다. 평일 인원은 예전보다 많아졌고, 토요일은 약간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일은 줌으로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토요새벽예배는 현장 예배를 재개해야 합니다. 대신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중'

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장도 11월부터는 현장 모임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오픈했다가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델타도 사라진 분위기입니다. 11월부터 다시 현장 모임과 온라인을 섞어서 진행하고, 내년부터 전면 대면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도 역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은 개인용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이젠 간단한 국밥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도 추워지니 국물이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전처럼 반찬을 많이 할 수 없으니, 국밥에 김치 하나 정도로 간소화했으면합니다.

교회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미 정상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야 합니다. 인원은 줄었으나 어쩌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고 반석 위에 선 사람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 <sup>ваев</sup>·моп

2022 May

##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God's Love and Mercy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 ♬ 새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묵상·**시편** 69:16-20

통독·시편 68-69편

- 16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 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 18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 아 나를 속량하소서
-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주님 앞에 있나이다
- 20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 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 지 못하였나이다

#### Reading Insight ······

The psalmist tries to find God during the time of trouble.

7 (Hymn 391)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Meditation • Psalm 69:16-20

Reading Plan · Psalm 68–69

- **16** Answer me, LORD, out of the goodness of your love; in your great mercy turn to me.
- 17 Do not hide your face from your servant; answer me quickly, for I am in trouble.
- **18** Come near and rescue me; deliver me because of my foes.
- **19** You know how I am scorned, disgraced and shamed; all my enemies are before you.
- **20** Scorn has broken my heart and has left me helpless; I looked for sympathy, but there was none, for comforters, but I found non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What makes the psalmist ask God to answer him? (69:16)

시편 기자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께 무엇을 구합니까? (18절) What does the psalmist ask God in order to be saved? (69:18)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God Is with Us. But Are We with God?

성서 고고학을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는 것의 한 가지 가장 좋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성경 인물들이 걸었던 동일한 땅을 실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느낌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를 걸을 때뿐만 아니라, 발굴할 때 로마 시대 토층을 내려 갈 때 더 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굴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와 관련된 일로 바쁘다 보면 제가 성지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도 사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제가 물리적으로 성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과 가깝게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숨지 않고 응답해 달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매일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One of the best benefits of doing biblical archaeology or taking holy land primages is that we can actually walk on the same ground where all the biblical characters walked before, including even Jesus Christ. Personally, this feeling intensifies not only when I walk down on the Via Dolorosa in the Old City of Jerusalem, but also when I dig down through the Roman Period.

So, for me, digging in Israel gives me a special time to walk with God. But not all the time. When I'm busy with my work and business, I often forget that I'm in the Holy Land. I believe that the opposite can also be true. Even though I'm physically far from the Holy Land, I can still be with God and walk with Him closely. What matters is whether I am with God or not because God never abanIn this PsaIm, it looks like God is not with the psaImist. But we can also understand what the psaImist does, asking God to answer him, not hiding from him, and drawing himself nearer to God, are his own efforts to come closer to God. As he confesses, because of God's steadfast love and abundant mercy, God never deserts him. It's only the psaImist who needs to find God. We should make the same effort everyda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2022 May

# 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God's Deliverance from Enemie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구할 수 있다.

## ♬ 새342장 너 시험을 당해

## <sub>묵상</sub>·시편 70편

통독·시편 70-72편

- 1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 소서
- 2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 게 하소서
-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 러가게 하소서
- 4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 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 Reading Insight .....

Those who seek God can call upon God and ask God for salvation.

(Hymn 342) Yield not to Temptation

Meditation • Psalm 70

Reading Plan · Psalm 70-72

- 1 Hasten, O God, to save me; come quickly, LORD, to help me.
- <sup>2</sup> May those who want to take my life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may all who desire my ruin be turned back in disgrace.
- 3 May those who say to me, "Aha! Aha!" turn back because of their shame.
- 4 But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ng for your saving help always say, "The LORD is great!"
- <sup>5</sup> But as for me, I am poor and needy; come quickly to me, O God.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LORD, do not dela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자는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1-2절)

When the psalmist is attacked by his enemies, whom does he seek help from? (70:1–2)

시편 기자는 왜 자신을 속히 구원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5절)

Why does the psalmist ask God to deliver him hurriedly? (70: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누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Who Can Call upon God?

이스라엘에서 발굴하는 동안 이상한 유물을 발견하면 현장에선 고고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물을 볼 때는 각자의 관심 에 따라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고고학자마다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관심사에 따른 의견과 마찬가지로 본 시편은 두 명의 다른 구도자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부분은 시편 기자의 생명 을 찾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다른 고고학자들처럼 이 시편의 두 그룹 은 불명예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추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성공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추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학업 성취, 자녀 교육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During the excavation in Israel, when we find some strange artifacts, different archaeologists offer different opinions in the field. Of course, when they see artifacts, they tend to see and interpret them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Obviously, even with the same object, each archaeologist can get different study results based on what they are seeking.

Just like how archaeologists' opinions are based upon their interests, today's psalm is divided into two distinct parts by two different seekers. The first part is for those who seek the life of the psalmist and the second part is for those who seek God. And just like archaeologists with different interests, two different groups in this psalm get two different results—dishonor and salvation!

It's true to say that we reap what we sow. If we seek success in business, we may get it. If we seek academic success, then we may get it. If we seek success in the children's education, we may get it. But they can't be the same as seeking God. Those who seek and have successful businesses, academic achievements, and children's education may not claim that they are poor and needy because they got what they want. The psalmist says that those who have become poor and needy because they are seeking God have the right to call upon God and ask Him for salvation.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Box$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 2022년 5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시편 1편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무결성 | 시편 15편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비를 내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 시편 40:1-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 시편 50:12-15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당신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 시편 70:4-5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1편** 

#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새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링 새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01 여는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02 본문이해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매번 학기가 시작될 때 학생들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대담한 선언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 당시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알았으면 하고, 지금도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세상에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트리나 파울루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작은 책자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읽고 기억한다면,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벌레가 올라가려고 하는 곳이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리거나, 한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서의 경주는 "꽃들에게 희망을"에 나오는 벌레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우리가 오르는 사다리는 경제적 성공의 사다리, 학업 성취의 사다리, 건강의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현자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축복받고 번성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하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2절).

다음 절에서 시편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즉, 복된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남부 레반트의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은 생명의 근원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가에 살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3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물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학생들처럼 "나는 내가 가는 곳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 03 말씀속으로

시편 기자는 복된 삶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3절)

#### 04 삶속으로

이 시편에 따르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살고 있습니까? 시냇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시냇물로 가고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시편 1:1-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06 자녀와나눔

이 시편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길 중에서 자녀들이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의 삶에서 이 시편에 대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본문 시편 15편

# 무결성



새420장 너 성결키 위해 새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새370장 주 안에 있는 <u>나에게</u>

#### 01 여는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무결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02 본문이해

고고학 발굴에서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발굴의 모든 단계에서 기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고고학 발굴에 가보면 발굴 지역 담당자들이 주로 앉아서 무언가를 쓰거나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면 보고서나 그림뿐만 아니라 유물 수집도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대 유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출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굴지역을 바둑판처럼 나누고 모든 지역에 고유 번호를 할당합니다. 따라서 발굴 자원봉사자가 유물을 수집할 때 해당 지역에 할당된 버킷에 유물을 넣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지역의 유물을 넣으면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버킷에 "오염"이라는 표를 붙이게 됩니다. 이는 버킷에 할당된 지역에 속하지 않는 유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전체 연구의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기시대를 연구하고 있는데 철기시대 토기 중에서 현대 유물이들어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 버킷의 무결성이 손상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굴할 때뿐만 아니라 발굴 현장을 돌아다닐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돌도 발로 차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화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고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그것을 제의적 그리고 도덕적 성결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만

지면 성결을 잃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고결성을 거룩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 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 을 성별한 후에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발굴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집어 잘못된 버킷에 넣거나 잘못된 것을 집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무결성이 손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완전성,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열쇠 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무결성뿐만 아니라 더 큰 신앙 공동체의 무결성도 손상시킵니 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무결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 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무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 03 말씀속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처소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2-5절)

#### 04 삶속으로

시편 기자는 3-5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소개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실천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15:1-2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06 자녀와나눔

우리의 삶에서 3~5절에 나열된 일들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십시오.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40:1-5

# 비를 내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새32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새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새393장 오 신실하신 주

#### 01 여는 질문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인내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십니까?

#### 02 본문이해

최근에는 건기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상치 못한 높은 강수량은 각 가정과 교회 마당의 잔디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비에 대해 낭만적이거나 홍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아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물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기 위해 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이른 비(yoreh, 가을비)와 추수 전에 늦은 비(malkosh, 봄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풍성한 수확이 불가능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은 메마른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러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알은 토르와 같은 가나안의 폭풍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경작에 종사했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으며 바알이 땅에 비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랬다면 "약속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때, 하나님의 통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 03 말씀속으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b절)

#### 04 삶속으로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시편40:1-3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 06 자녀와나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449장 예수 따라가며 새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01 여는 질문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현하십니까?

#### 02 본문이해

학교에서 저의 발굴 감독관이 "예루살렘 고고학"과 "성서 시대의 일상생활"과 같은 과정을 가르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보여줘도 그들이 최종 인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 계획을 공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네, 가고 싶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분도 최종 인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최종 인원을 계수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오고 누가 안 오는지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최종 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 발굴담 당자는 "꼭 현실로 만들어야 해!"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이나 해외 선교 여행을 꿈꾸는 것은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꿈만 꾸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여행이든 그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스라엘 발굴이나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예전에 하던 일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시작하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행의 종류에 따라 헌신의 심각성이 다릅니다. 발굴이나선교 여행에 참여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 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살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계산에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1~2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가 영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땅의 소유를 영속시키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했을 때(그가 있던 곳에서) 앞으로 나아갈수 없었습니다(여행을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는 부자 청년 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참된 감사와 서원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03 말씀속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실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5절)

#### 04 삶속으로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진지한 헌신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공허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일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시편 50:14-15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06 자녀와 나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비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참된 감사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70:4-5

# 당신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새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새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449장 예수 따라가며

#### 01 여는 질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본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 02 본문이해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앨런 튜링은 암호 메시지를 마치 독일 군인이 암호화하는 것처럼 읽는 여성 팀원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해독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물론 이 유레카 순간은 드라마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수께끼 같은 코드를 설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은 완전히 허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는 일을 쉽게 게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호학의 세계에서 수수께끼 같은 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삶의 패턴을 관찰하고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여정 또한 모방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가 그 규범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숨겨진 코드가 없고 다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마고 데이(imago Dei)는 창세기(1:27)의 인간 창조 장면을 통해 매우 잘 알려진 라틴어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났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의 과정을 성화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므로 하나

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이 구원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이마고 데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타치오 데이(imitatio Dei), 즉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거나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분의 주권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왕좌의 게임"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은 그의 거룩하심입니다. 우리는 "왕좌의 게임"으로 하나님의형상을 회복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게임에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왕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방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 03 말씀속으로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까? (5절)

#### 04 삼속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해야할 짐이 되고 있습니까?

#### 05 암송구절 시편 70: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 06 자녀와나눔

자녀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을 강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분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Know Where You Are Going



God Gave His Only Begotten Son More Love to Thee, O Christ Sing Them Over Again to Me

#### 01 Opening Discussion

Do you know where you're going in your life journey as a Christian?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is a university in my town. When the semester began, I used to see college students wearing a t-shirt which said, "I Know Where I'm Going." That's a bold statement. I really hope that they actually knew where they were heading back then and I hope that they are still heading to the same destination now. I said this because it is very hard to know if where we're going is the right way and if we're heading for the right destination in the world.

When I was young, "Hope for the Flowers" by Trina Paulus was very popular. If you read and remember it, one of the captivating parts is where the worms are trying to go up, where they can't find anything. In the world, we think we know where we're going because it seems like everybody is running in one direction or climbing up one ladder. In this race, we try to beat others in order to get ahead and reach the destination first.

But our worldly race is like what the worms in "Hope for the Flowers" are doing. Indeed, it is analogous to our life. Many of us don't know where we are heading. Even though they know that where they are heading gives us nothing, they don't want to acknowledge the fact or don't want to think about that. The ladder we are climbing can be a ladder of economic success, academic achievement, or having invincible health.

According to the ancient Israelite sage, there are two ways that we can take in our journey in this world. The first one is the way that we can be blessed and flourishing, and the other one is the way that we will perish. The psalmist describes the first way like thi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1:2).

In the next verse, the psalmist expresses clearly what it means delighting in the law and meditating by it day and night. That is, the blessed way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ater in the southern Levant means the source of life. So, our way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source of life. Are we living by the water? Our fruits will answer the question because the trees planted by streams of water yield fruit in its season (1:3). If not, are we coming toward the water? Can we say like those college students, "I Know Where I'm Going"? Do you really know where you're going?

#### 03 Into the Word

How does the psalmist describe the blessed life? (1:2-3)

#### 04 Into our life

According to this psalm,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life? Are you living by the stream? Or if you are away from the stream, are you coming to the stream?

#### 05 Memory Verse Psalm 1:1-2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is



Take Time to be Holy Sins of Years are Wash'd Away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 01 Opening Discussion

How do you rate your Christian integrity?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recording is very important. So, in every stage of excavation, recording is of the utmost importance. So, if you go to any archaeological excavation using a modern methodology, you'll see that supervisors mostly sit down and write or draw something.

Not only a written report or illustration, collection of artifacts has to be done in a precise manner. In order to study ancient artifact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its provenance—where it comes from. We make grids and every grid is assigned its unique number. So, when dig volunteers collect items from a grid, they have to put items into a bucket assigned for that grid.

An unfortunate thing happens when we accidently put in an item from other grids. When it happens, we label the bucket "Contaminated"! That means the bucket has items that do not belong to the assigned grid. What's the big deal about it? It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study. Guess what! We're studying the Iron Age but among the Iron Age pottery sherds, we found artifacts from the modern Arab period! The integrity of the whole grid has been compromised. This unfortunate thing can happen not only at the time of digging, but whenever we walk around the excavation area. So, we warn people not to even kick a small stone.

Integrity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ose who are taking a sanctification journey.

Back in the Old Testament times, people elaborated it into ritual and moral integrity. So, whenever the ancient Israelites made contact with the things that caused them to be impure, they lost integrity and couldn't come into the tabernacle or the temple, the presence of God.

We can call this integrity holiness. We know God is holy and God calls us to be holy. But as we live in this world, it's possible that we can get contaminated even after we consecrate ourselves. Our life in the world is like an excavation. There are many chances that we pick up something and put it into the wrong bucket, or we pick up the wrong thing. If we do that, we compromise our integrity. It compromises not only our personal integrity but also our larger faith community as well because our personal integrity, holiness, is the key to connect with others. Who can dwell in God's holy hill? It's who keeps his integrity. In other words, the one who is holy can dwell in God's place. Let's strive to keep our integrity before God.

#### 03 Into the Word

How does the psalmist describe the one who can dwell in God's place? (15:2-5)

#### 04 Into our life

The psalmist introduces many don'ts in vv. 3–5. Do you do these things or you don't practice them?

#### 05 Memory Verse Psalm 15:1-2

"LORD, who may dwell in your sacred tent? Who may live on your holy mountain? The one whose walk is blameless, who does what is righteous, who speaks the truth from their heart."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In our life in the world, it is hard not to do the things listed in vv. 3–5. Share your practical ways to avoid doing them. And also share if you have done them, then what we have to do.



# Raining God and God's Reign



My Life, My Love I Give to Thee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Great is Thy Faithfulness

#### 01 Opening Discussion

When troubles come, do you patiently and faithfully wait upon God's deliverance?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Recently, we have had a lot of rain even during the dry season. Many people talk about rain because unexpected high precipitation causes unexpected problems, such as the overgrowth of the grass in personal homes and churches.

For me as the one who was born and raised in a city, I had a very narrow view on rain, either romantic or problematic, but not seeing the life–giving part. But for the ancient Israelites, the rain was the most essential part for sustaining their life in the Promised Land. Yes, it is the Promise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but not with water! So, even in the Promised Land, the Israelites had to wait upon rain for their crop cultivation.

Early rain (yoreh; a.k.a. the former and the autumn rain) when they sow and late rain (malkosh; a.k.a. the latter and the spring rain) before the harvest were very important. Without these, a bountiful harvest was impossible. Without rains, the Promised Land is barren. That was the reason why the Israelites went to worship Baal. As you know, Baal is a Canaanite storm god like Thor. The Canaanites engaged in cultivation and they worshipped Baal, whom they thought provided them with rain on earth.

It is obvious that the Israelites misunderstood what it meant to be "the Promised Land," if they used these words. They had to live upon the promise of God. They

had to wait when God rains. We may call this act of waiting for God's time, because He promised, "faith." You may have been waiting for "rains" in your life. Whatever the rain is for you, even if it is delayed, don't turn to Baal. Have faith in God's promise given to you and wait upon His time because God still reigns over us.

#### 03 Into the Word

What does the psalmist ask us not to do when we're waiting upon God's deliverance? (40:4b)

#### 04 Into our life

In your life, what are you waiting for? What do you ask God?

#### 05 Memory Verse Psalm 40:1-3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out of the mud and mire; he set my feet on a rock and gave me a firm place to stand. He put a new song in my mouth, a hymn of praise to our God. Many will see and fear the LORD and put their trust in him."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what your children have been asking God. If God has not answered their prayers, share how they can patiently wait upon God.



# Make It a Reality!



When We Walk With the Lord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Dying with Jesus

#### 01 Opening Discussion

How do you materialize your faith in your daily life?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Back on the campus, when my excavation director taught courses like "Archaeology of Jerusalem" and "Daily Life in Biblical Times," many students would say that they would love to come to Israel and join the dig. No matter how many people showed their enthusiasm, they did not make up the final numbers. The same thing goes for planning and organizing a mission trip. When we share our plan for a mission trip, many people would show their interest and may say, "Yes, I want to go." But that doesn't count as the final call.

How can we finalize? How can we count who is coming and who is not? It's very simple. Those who bought the airplane tickets would be counted in the final number. So, my excavation director used to say, "It must be materialized!" Dreaming to go on an archaeological excavation in Israel or a mission trip in foreign countries is just an idea, but it must be materialized.

I would say that the Christian journey has the same nature. It has to be materialized. We can't just go on the journey and come closer to God, if we only dream of going along The Way and of having fellowship with God. If we want to take The Way, we should actually walk along The Way with God.

Embarking on any journey entails leaving where we are. Anyone who wants to join the dig in Israel or the mission trip should leave where they used to be and what they used to do. So, embarking on a journey requires commitment. The seriousness var-

ies depending on the kind of a journey. Since joining the dig or mission trip costs a big sum of money, it requires a serious financial commitment. Not only that, they have to give up their time as well. So, when they put these all in their calculation as the time comes to buy the airplane tickets, many people would say, "I can't come."

This picture reminds us of the young rich man in Matthew. As we know, the young rich man was interested in having eternal life. But when Jesus told him, "'If you would be perfect, go, sell what you possess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and come, follow me.' When the young man heard this he went away sorrowful, for he had great possessions" (Matt 19: 21–22). Perhaps, the reason why he was interested in eternal life was that he wanted to perpetuate his earthly possession. So, when he had to leave behind all possession he had (where he was), he couldn't move forward (embarking on the journey). We shouldn't be like the rich young man. We have to materialize our Christian journey. The psalmist emphasizes that God doesn't want empty sacrifices but actualize our faith in Him by true thanksgiving, fulfilling our vows, and calling upon him.

#### 03 Into the Word

On the day of trouble, God asks us to actualize our faith. How can we do that? (50:15)

#### 04 Into our life

In our life, oftentimes we worship and praise God with our lips but without serious endorsement or commitment. Do you do that? If so, in what area do you do that? Can you identify them in your life?

#### **05 Memory Verse** Psalm 50:14 – 15

"Sacrifice thank offerings to God, fulfill your vows to the Most High, and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Explain to your children what is an empty sacrifice in their life and how they can give them true thanksgiving, perform their vows, and call upon God.



# What Game Are You In?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I Could Not Do Without Thee When We Walk With the Lord

#### 01 Opening Discussion

In order to be holy like God is holy, do you seek (imitate) God and rejoice in Him?

####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The Imitation Game, Turing figured out how to decode the encrypted messages from the idea of a woman, who read the encrypted message as if she was a German soldier who encoded the messages. Of course, this eureka moment is a dramatiza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thinking like the one who designed an enigmatic code is not entirely fiction.

We can't call what we do in order to become "perfect Christians" a game. But in order to become "perfect Christians," it is very critical to imitate God. In the world of cryptography, in order to break the enigmatic codes, we have to find patterns. So, perhaps we may call our Christian journey an imitation game because we also need to observe and follow the pattern of life that God has laid out for His people. The biggest and foremost difference in becoming "perfect Christians" is that we don't have to break the code. Truth is, there is no code, but instructions, which are given to all.

For us, imago Dei is a very well–known Latin phrase referring to the scene of the creation of humans in Genesis (1:27). Christians are those who believe and confess that this image of God has been shattered, but through Christ Jesus, God provides us with the way in which we recover the image of God in us. And we say that the recovery process is the sanctification journey because God is holy and therefore

recovering the image of God is recovering our holiness. We know that this journey is part of salvation.

So, more than imago Dei, what is important for us now is imitatio Dei, that is to imitate God. If we want to regain our lost image of God in us or recover the shattered image of God, it is important to imitate God. In imitating God, we're not imitating his sovereignty thinking we can do whatever we want. It may be called a "game of thrones." This game is usually for "our" pleasure and "our" profits. What we should imitate of God is His holiness. We can't recover the image of God through the "game of thrones." Only when we imitate God, can we do so.

The psalmist assures that when we do, we can rejoice and be glad in God. It is what those who love God's salvation do and they will confess, "God is great!" So, ask yourself what game are you in? A game of thrones? Or an imitation game?

#### 03 Into the Word

Why does the psalmist confess that he is poor and needy in order to get God's salvation? (70:5)

#### 04 Into our life

In our life, does seeking God give you joy? Or has it become a burden that we have to check in order to have peace in our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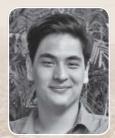
#### 05 Memory Verse Psalm 70:4

"But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ng for your saving help always say, "The LORD is great!""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Help your children to examine what they are doing is honestly seeking God as the one who needs God's help or making themselves strong and powerful so that they can be self-sufficient.

###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23 Country: El Salvador

Serving At: The Evangelical Methodist Church of El Salvador

Home Country: USA

Grayer, Benjamin G.

Benjamin Garrett Grayer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Born and raised in Clarksville, Tennessee, USA, Benjamin is now

serving in Ahuachapán, El Salvador. He is a member of Salem United Methodist Church, Clarksville, in the Tennessee Annual Conference. In 2019, he received a degree in church vocations with an emphasis on pre-seminary and a minor in general psychology from Martin Methodist College, Pulaski, Tennessee. He has worked as a house pastor and a site coordinator for Project Transformation and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At Project Transformation, he said, "I started understanding ministry and community as one in the same."

Growing up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enjamin said, "I was very adamant about my faith, particularly my youth group. My church was very missional, so I have always found God in helping others." He took his first foreign mission trip in high school. "I started understanding my call to ministry as a call to missions," he said. "Since then, I have been discerning this call. Most recently, I have done a lot of work with a mission organization in Mexico called Give Ye Them to Eat. I had the opportunity to live in Mexico for a semester, and while I was mainly studying, I did various things with GYTTE. That sparked an interest in sustainability miss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 and what that looks like in developing countries or low-income communities."

Contact Information: bgrayer@umcmission.org

# 사귐의 기도 17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나님은 말보다

보

신

말이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몇 마디로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마6:7)고 가르치셨다. 말을 아끼라는 뜻이다.

이처럼 짧은 문장 혹은 한두 개의 단어로 드리는 기도를 단문 기도라고 한다. 이스라 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기도에 익숙했다. 그들은 전쟁이나 재앙 같은 위급한 상황에 서 "성전이여, 성전이여, 성전이여!"라고 외 쳤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였다. 그들은 이렇 게 외치면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 와주신다고 믿었다.

단문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예수 기도'다. '예수 기도'는 19세기에 무명의 러시아인이 쓴 〈순례자의 길(The Way of A Pilgrim, 은성 역간)〉에 소개된 후 즐겨 사용되어왔다. 이 기도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문장 '키리에엘레이손'을 특별한 방법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책에 기록된 예수 기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조용히 홀로 앉아 침묵한다.
-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물고 부드럽게 호흡한다.
-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런 다음, 모든 생각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린다. 그렇게 상상한다.
- 이어서 천천히 고르게 숨을 내쉰다. 이때 마음 속으로 '키리에 엘레이손'을 음송한다.
- 가슴으로 끌어온 모든 생각을 호흡과 함께 내어버린다.
- 다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예수 기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 지면 편안한 영적 휴식을 맛보며 내면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기도의 장애물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나타난다. 쉽게 지루해지고 무감각해진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훈련하면 신선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반드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심정을 담은 말이면 무엇이든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등의 성경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단문 기도를 늘 '예수 기도'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용한 기도 시간에는 유용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혼자 운동할 때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단순노동을 할 때도 단문 기도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심정은 혼란스럽다.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이때, '주님 저를 붙드소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

또한 단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도 좋은 습관이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다양한 영창(Chant)을 부르게 하는데, 가사가 복잡하지 않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나 '라우다테 도미눔(주님을 찬양하라)' 같은 단문을 반복한다. 영창은 단문 기도를 가락에 실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창의 습관은 개신교에서 회복해야 할중요한 전통 중하나이다.

단문을 더 줄여 기도할 수도 있다. '낱말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까?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반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과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칭호인 '아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마라나타(주여, 오시옵소서)' 등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가 된다. 이 경우에도 '예수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크게 들이킨 후 길고 고르게 내쉬면서 '아-바-'하고 음송하는 것이다. 동 시에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안고 계신다고 상상한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고

매우 친근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꼭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 중에도 좋은 단어들이 많다. '안녕'이 그 예다. 이는 히브리어 '샬롬'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같은 자세와 방식으로 '아~안~녀~엉~'하고 음송하면 된다.

또 '탄식'만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 탄식은 저항으로 표현된 순종이며, 의심으로 표현된 믿음이며, 거부로 표현된 승인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절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들이겠다는 최종적인 승인이다. 마음을 다해 내뱉는 '주여!'라는 한 마디는 수천 혹은 수만의 문장을 담아낼 수 있다. 탄식 한 마디면 되는 상황에 굳이 말을 만들려 애쓸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도록(마 7:21) 조심할 일이다.

하나님은 말보다는 그 말에 담긴 중심을 보신다.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단문 기도는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임찬순목사 COVENANT UMC, TX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열람실 한구석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국 신문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가면이진희 목사(웨이코KUMC)가 "이스라엘의 문화로 읽는성서 이야기" 비슷한 제목으로 쓰는 칼럼이 있었다. 이목사는 당시 성경의 유대적 배경에 대해 많은 책을 집필하고있었는데 〈광야를 읽다〉와 〈광야를 살다〉로 잘 알려졌고,이번에 〈가나안에 거하다〉(두란노)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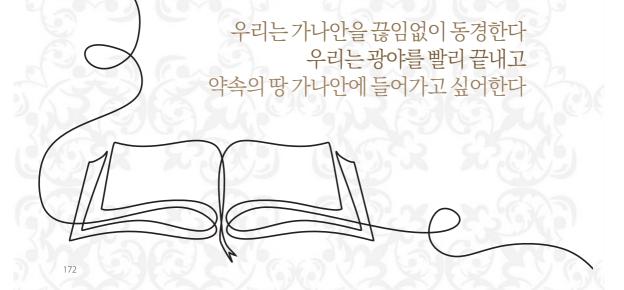
우리들에게 가나안은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는 땅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를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의 관념 속에서 광야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과 연결되어 있다.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기에 광야를 견뎌낼 수 있다. 저자는 광야 시리즈 완결편으로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광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가나안을 끊임없이 동경한다. 우리는 광야를 빨리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0년, 광야를 다지나 가나안에 들어



갈 때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저자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은 40년 동안 지나온 광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는 가나안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사정없이 깨뜨린다. 가나안의 절반이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가나안은 없다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기근이었고, '가나안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다'라고 도전한다.

가나안에는 가뭄과 기근을 모르는, 사시사철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게 해 주는 나일강이 없다. 그곳에는 개울보다 조금 큰 요단강 하나만 있다. 그래서 애굽처럼 강에 의존해서 살수 없다. 가나안은 하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어야 젖과 꿀 이 흐르는 땅이되고, 비를 내려 주지 않으면 광야가 되는 곳,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살아도 기근은 찾아온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아도 인생의 기근을 만날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도 문제를 만난다. 그렇게 기근이 없는 가나안은 없다.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은 단선적이거나 평면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다. 저자는 "광야 안에도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안에도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며, 깨달음이다.



이 목사는 해마다 성지 학습 여행을 인솔한다. 성서 지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는 가나안이 실제로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잘 알고 있다. 지리적으로 광야가 가나안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역시 광야만큼 아니 광야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들어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크게 실패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가나안은 광야와 달리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가나안은 바알 종교가 판치는 곳이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곳이다. 그렇기에 가나안은 영적으로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저자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가나안과 광야는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게 되면 그곳이 광야가 되고,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곳이 곧 가나안이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가나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읽기 시작하면 손에서 놓기가 어렵다. 이야기 전개에 무리가 없고 언제나 의외의 반전이 숨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갖고 있는 전형적인 사고와 이해의 틀이 있다. 그것들은 종종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성서의 폭을 넓혀주고 더 깊은 이해로 나가는 것을 막을 때도 있다. 이 책은 학문적이지 않은 듯하면서 탄탄한 학문적 깊이가 있고, 평범한듯하면서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준다. 광야를 40년 고생길로 바라보거나 가나안을 문제 없는 천국으로 오해하던 우리의 단면적 성서 이해의 폭을 깊고 넓게 해 주는 책이다. 그런 우리가 가나안에서 제자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도전이 있다. "우리는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 줘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눈여겨본다."

# **QT-Journaling**



# 에벤에셀하나님, 나의하나님(1)

김희련 집사\_뉴난한인교회, GA

### 202012431034203

###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18〉

한나의 믿음!!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는 얼굴로 살았다.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한나에게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나도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엄마가 되고픈데 요즘 나의 믿음이 자꾸만 작아져간다.."

말씀 앞에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아이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는 깊은 묵상을 할수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영상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서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깨닫게 하셨다.

미국에 와서 부딪힌 여러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펼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의 불신앙을 보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다.

특별히 육아로 지친 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정오기 도회를 열었고 한동안 멈춰 있던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큰 은 혜이고 감사였다.

### 2020년9월30일

#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30,31〉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바울,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셋집에서 살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복음을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고 바울은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성령강림 약속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성령강림 후 쉬지 않고계속된 복음의 확장 스토리를 보여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 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복음의 길은 순탄치 않지만 기도로 성령님께 사로잡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하게 되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감사한 것은, 교회의 캠페인에 따라 거의 매일 가족이 함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다. 복음의 최전선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잘 물려주는 것이 가정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의 하나이다. 팬데믹 이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한창 교회 안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가정이 교회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있던 가정예배에 대한 안타까움과 목마름이 있었다. 그것이 이번 달에 어느 정도 해소된 것같아 참 감사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도 남편도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예배시간에 아이들은 몸이 뒤틀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장난도 치지만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알기에 다음 달에도 고고씽하길 다짐한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제자들을 보며 나 또한 그러하길 소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달 동안 가족이 함께 말 씀을 읽고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 부부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 희가족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와 말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10월쯤 남편이 회사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단 그 문제만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3년 동안 미국에서, 새 직장에서, 일하며 관계를 맺는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나아지지 않는 가정경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의 무게가 남편을 누르고 있음을 보였다. 그 즈음 나 또한 미국 생활 3년을 넘기면서 한국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다. 우리 부부는 연말까지 몇 달을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거처를 고민했다. 그리고 새해를 며칠 앞두고 미국에 있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 가정을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

내시기 전까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했다.

새해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연말부터 주일예배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첫째와 둘째, 셋째가 1월부터 학교에 가면서 나에게 평일에 잠깐의 쉼들이 허락되었다. 회사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던 남편에게 문제를 붙들고 있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다. 가정경제의 불안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던 나에게도 더 크신하나님의 채우심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다. 믿음의 눈을 드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 것이다.

"근데 여보 생각해 보니 내가 참 많이 바뀌었네요~ 1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 나는 게 싫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왜?"

"왜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들 울음과 짜증 소리가 시작되니 밤에는 내일 하루는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자기가 싫어서 버티다 버티다 자곤 했어요. 그 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피곤하고 아이들은 울고 악순환이었죠."

"정말? 그랬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너무 좋아요~ 내가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고 싶었던 것도 하니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웃으면서 굿모닝 할 수 있고 그래서인지 아이들도 짜증이 덜하구요. 하나님께서지난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바꾸셨구나 싶으니 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 평소보다 일찍 깬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다. 팬데믹으로 다들 힘들다지치다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삶은 정말 무너졌을 것이다. 여전히어려운 미국 생활, 하루 종일 엄마를 부르는 네 아이들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는여러 삶의 무게를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매일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 한 권에 \$3.5

#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백리한인연한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네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생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딱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유, 410-200-3859)

####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이한인연합감리교회(나웃철 803-447-6186)

####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약광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대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상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성톤한인교회(김영휴, 703-448-1131)

####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 GAUM(괌)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 영어번역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목회자 기획위원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방승호 목사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EM, TX))

#### ❖ 주일 칼럼

이강 목사 (가득한연합감리교회, NJ) 한진호 목사 (은혜 연합감리교회, CA) 림학춘 목사 (라구나힐스교회, CA) 한천영 목사 (갈릴리선교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